

華嚴書院 山仰會報

身心內外敬重該
事理知行家總裁
立本切宜常戒懼
研幾何有費安排

錄河西先生詩吟示景范仲明
庚寅立秋後學高無后人柳鳳子敬書

社團法人 華嚴書院 山仰會

(515-812) 全南 長城郡 黃龍面 鷗岾서원로 184 電話 : 061-394-0833
發行人 : 山仰會 理事長 鄭煥淡 編輯主幹 : 金梓洙

“기름 넣을 때 됐나?”

이 평범한 말로부터 삼양은 연비를 생각합니다
기름값을 낮추는 대신 차의 무게를 낮추면

● 아직 남았네 ●●●

[금속, 유리를 대체하는 차체경량화 특수소재 개발]

삼양이 당신과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samyang
life's ingredients

송별(送別)

하서 김인후

시가 오늘의 모임 매개해 주니
얼굴 맞대고 후년을 기약
구름 밖의 외로운 돛대 그림자
만리라 하늘가의 생각이로세
바람은 객의 꿈을 날려 보내고
달은 타향의 잔에 비추이누나
부러워라 그대는 어머니 곁에서
색동옷 입고 어머니 모시겠구만

詩媒今日契
面托後年期
雲外孤帆影
天涯萬里思
風吹倦客夢
月照異鄉卮
羨子萱堂側
晨昏彩服隨

비 개자 창문 열고 하늘을 보니
구름은 한빛으로 깔리어 있네
솔소리는 돌아와 바슬거리고
산빛은 고요할사 분명하구려
술잔은 시름으로 기울어지고
시 주머닌 글귀 담겨 비스듬하이
무슨 일로 또다시 먼 이별일고
객지신세 더욱 정을 어찌한다지

雨霽開窓看
天雲一望平
松聲還屑窸
山色靜分明
酒罍因愁倒
詩囊得句傾
何當復遠別
客裏若爲情

하서 김인후의 자식 잃은 슬픔

김세곤(호남역사연구원장)

도학과 절의와 문장의 큰 선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는 영남의 퇴계 이황(李滉 1501~1570)과 쌍벽을 이룬 유학자이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사람이며, 장성 필암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하서 선생은 윤씨 부인에게서 3남4녀를 얻었다. 아들은 장남 김종룡과 차남 김종호, 그리고 셋째아들은 일찍 죽었다.

네 딸 중 첫째 딸은 조희문, 둘째 딸은 소쇄원 주인 양산보의 아들 양자징¹⁾, 셋째 딸은 미암 유희춘의 외아들 유경렴과 결혼했다. 그런데 넷째 딸은 열세 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가장 불효라고 한다. 자식 잃은 부모의 설움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한다.

막내딸이 요절하자 김인후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만사 하릴없다, 관 뚜껑 덮고 누워 괴로워했네. 병의 뿌리 깊었던가, 여러 해 동안 약을 구하기 어려웠네. 거센 바람 굶은비, 처음 엮 하던 그날, 처진 나물 찬 과일로 뉘 보내는 상 차렸다네. 뿔뿔 타는 매운 불꽃, 집에 뻗쳐 놀 랐다오. 이후로 이내 몸엔 온갖 병 더하기만.”

어린 딸을 잃고 슬픔에 젖은 하서는 딸의 무덤 앞에서 오열했다.

내 딸이여 내 딸이여
마음과 몸 맑았도다.

심기(心氣)조차 한정했어. 단아하고 성실했지
갓 자란 난초, 티 없는 구슬

빈 산에 너를 묻다니

봄이 와도 모르겠네.

죄 없는 너 보내놓고 이 지경 되었구나.

백년가도 원통하지

내 가슴 무너지네.

어허라! 세 번 노래

노래도 구슬퍼

하늘 보고 목 놓아 우노라

하늘은 대답 없네.

(하서집 1권 566~567쪽)

하서는 시의 뒷부분에 넷째 딸이 죽은 날과 날씨에 대하여 상세히 적어 놓았다.²⁾

그녀는 칠 월 십팔일에 세상을 떠났다. 이 날
밤,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많이 내렸다.

그로부터 삼년 뒤 하서는 다시 막내딸을 그리는 시를 쓴다.

장성 가는 길에 짓다

내 딸 세상 뜬 지 어느덧 삼년

해 넘겨 다시 오니 비참하기 그지없다.

무덤가 가벼운 바람, 얼굴을 스치네.

내 딸의 뉘, 정녕코 이 가운데 엉겼으리.

長城路中作

장성노중작

죽은 자식을 곡하다

女挈歸骨已三年

여나귀골기삼년

隔歲來看一慘然

격새래간일참연

塚外輕風吹到面

총외경풍취도면

便應精夾此中邊

편응정협차중변

(하서집 2권 26~27쪽)

1545년 7월에 넷째 딸을 잃은 하서. 3년 후에 그는 장성 가는 길에서 죽은 딸을 다시 생각한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은 비통하다.

이 시에서 여나(女挈)는 당나라를 대표하는 명문장가 퇴지 한유(768-824)의 넷째 딸이다. 한퇴지의 딸도 12살에 병들어 죽었는데 하서는 자기의 넷째 딸을 여나로 부른 것이다. 한유가 쓴 애절한 시를 생각하면서 그는 이 시를 지었으리라.

한 손으로 눈물 훔치는 아버지의 정이 엿보이는 하서의 이 시에는 옛 선비들은 근엄하고 정을 모른다는 편견을 벗게 한다. 더욱이 넷째 딸은 자기가 모시던 인종(1515~1545)이 30세에 승하하고 난 뒤 한 달도 안 되어 죽었기 때문에 슬픔이 가중되었을 것이다.

이 시를 쓴 1548년은 1545년 을사사화 이후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명종의 외삼촌 윤원형 일파가 송인수, 임형수 등 사림들을 죽이고 유희춘, 노수신 등을 먼 곳으로 유배 보내는 시절이었다. 이 때 하서는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지내고 있어서 화를 피할 수 있었다.

한편 하서는 넷째 딸이 죽기 몇 년 전에 셋째 아들도 잃었다. 셋째 아들은 나이가 5-6세이어서 기록에도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 그는 이런 시를 쓴다.

석자 시신에 두세 치 관을 쓰고

북망산을 바라보니 눈이 늘 차갑구나.

사람의 일 가련하니 슬퍼한들 무엇 하랴.

야속한 하늘의 마음 믿으려 하여도 어렵네.

동야의 울음소리는 목에 매어 듣지 못하고

한퇴지의 제사상도 헛되게 처량하구나.

책상머리의 책들이 평생의 흔적이다.

그림자 부질없이 뭉개간에 나타나네.

(하서집 2권 659쪽)

어린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한 장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아들을 산에 묻고 집에 와서 책상머리의 책들을 보니 공부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린다는 표현은 압권이다.

이 시에서 ‘동야’는 당나라 시인 맹교의 자인데 그는 세 아들을 모두 다 잃었다. 그래서 늙어서 후손 없음을 한탄하였다 한다.

| 각주 |

1) 하서는 둘째 딸과 결혼한 양산보의 둘째 아들 고암 양자징(1523-1594)을 매우 예뻐했다. 고암은 하서 밑에서 수학하였으며 사후에도 하서와 함께 필암 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2) 하서는 이 시를 언제 썼는지는 적어놓지 않았다. 백승중 교수는 그의 저서 <대숲에 앉아 천명도를 그리다>의 김인후 연표에서 이 시는 1545년 7월에 썼다고 표기하고 있다. (백승중, 대숲에 앉아 천명도를 그리다, 돌베개, 2003, P 446)

필암서원(筆巖書院)과 울산김씨(蔚山金氏)

김봉곤(원광대 연구교수)

1. 머리말

필암서원은 호남 지역에서 문묘에 중향된 유일한 인물인 河西 金麟厚(1510~1560)와 그의 문인이며 사위인 鼓岩 梁子澂(1523~1594)을 모신 서원으로, 현재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에 위치해 있다. 필암서원은 1590년(선조 23)에 건립되었으며, 1662년(현종 3)에 사액을 받았다. 그리고 1672년(현종 13년) 현재의 필암리로 이전하였는데, 이 서원은 1871년(고종 8)의 서원 철폐 시에도 존치된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로서, 1975년 사적 242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전국의 다른 8개 서원과 함께 2011년 12월 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신청되었다.

필암서원이 이처럼 사적으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필암서원의 각종 건축물이나 현판, 서적 등이 잘 보존되어 있고, 현재에도 하서 김인후의 학문과 절의를 지키는 전통이 각종 제향과 강회 등을 통해 잘 계승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필암서원은 남북 자오선을 중심축으로 공부하는 곳은 앞쪽에, 제사지내는 곳은 뒤쪽에 배치한 前學後廟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앞쪽으로는 유생들의 휴식처가 되었던 廓然樓를 지나 강당인 淸節堂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강당의 좌우로는 유생들이 공부하던 동재인 進德齋와 서재인 崇義齋가 있고, 뒤쪽으로는 북쪽으로 문과 담으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사당인 祐東祠를 두어 북쪽에 하서 김인후, 동쪽에

고암 양자징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이러한 필암서원의 부속건물로서 우동사 바로 앞쪽에 인종이 하사한 묵죽도판을 보관하고 있는 敬藏閣, 오른쪽에 학생들의 공부를 보조하기 위해 하서 선생 문집과 유묵의 판각을 보관하고 있는 藏板閣과 도서를 보관하는 藏書閣, 향례 때 제수를 마련하는 典祀廳 등이 있다. 이 중 필암서원의 편액은 병계 윤봉구, 학연루는 우암 송시열, 청절당은 동춘당 송준길, 경장각은 정조의 친필이다. 청절당은 1672년 이 건 당시 진원현의 객사 건물을 옮겨 온 것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높고, 경장각은 인종이 하서 김인후에게 하사한 묵죽도를 판각한 묵죽도판을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인종이 타계하자 벼슬을 그만두고 인종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켰던 김인후의 절의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암서원은 오늘날에도 2월과 8월 두 차례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청절당에 주자의 백록동규를 적은 현판을 걸어두고 매달 학문을 연마하고 있는 강학의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필암서원은 청절당 외에도 집성관에서 각종 강회나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있어서 전통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선양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필암서원의 귀중한 문화유산과 문화적 전통은 이 지역 사람들과 김인후 후손들의 선양사업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하서 김인후의

후손이나 이 지역 사람들은 각종 사업이나 학술대회 등을 통해 김인후를 현양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다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김인후의 학문과 정신이 사람들과 후손들에 의해 어떻게 계승되어 갔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김인후의 생애, 필암서원의 건립과 사액, 이건, 울산김씨의 김인후 현양 사업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하서 김인후의 생애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학문에 대해 우암 송시열은 도학과 절의, 문장을 완비하였다고 하였고, 정조는 송시열의 평가를 계승함과 동시에 해동의 周子이며 호남의 공자라고 하여 김인후의 도학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무엇인가. 김인후의 학문 수학과 출사, 그리고 은거 이후 활동을 통해 이러한 측면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김인후는 본관이 蔚山이며, 자는 厚之, 호는 河西·湛齋이다. 그는 아버지 참봉 齡과 어머니 玉川趙氏 사이에서 1510년 장성현 大麥洞里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문장에 뛰어나 8세 때에 전라도 관찰사 趙元紀가 함께 시를 짓고 김인후의 조예에 감탄하여 ‘장성신동 천하문장(長城神童 天下文章)’이라는 글제로 도내의 諸生들을 시험하였다. 9세 때에는 복재 기준이 김인후를 만나보고 “참으로 기특한 아이이다. 마땅히 우리 세자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감탄하고 內賜筆 한 자루를 주었는데, 김인후는 이 붓을 평생 보관하고 복재 기준의 뜻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어 그는 10세 때에 전라도 관찰사로 내려왔던 김안국에게 소학을 배웠고, 18세에는 新齋 崔山斗를 동복으로 찾

아가 수학하였던 바, 그는 이미 소년시절부터 이른바 기묘명현으로부터 학문을 익히고 사람으로서의 소양과 정신을 익히게 된 것이다.

이어 그는 22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고서는 李滉과 교우 관계를 맺고 학문을 닦았다. 그는 154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용되었으며, 이듬해 湖堂에 들어가 賜暇讀書하고, 弘文館著作이 되었다. 이어 1543년에는 홍문관박사 겸 세자시강원설서가 되었는데, 이때 인종은 목죽도와 『朱子大全』 한 질을 하사하였다. 인종은 원래 예술에 소질이 있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내 보이지 않았는데, 김인후를 만나고서는 목죽도를 하사하고 畫軸에 시를 쓰도록 하였다. 그만큼 김인후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이다. 이에 김인후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뿌리와 가지, 잎새 마디 모두 정미하니
바위를 친구 삼은 뜻 여기에 들어 있네
성스러운 우리 임금 조화를 짝하시어
일단의 천지와 어김이 없을 것을 알았네
根枝節葉盡精微 石友精神在範圍
始覺聖神侔造化 一團天地不能違

또한 김인후에게 전해진 『주자대전』은 1543년 간행되자마자 하사된 것으로서, 김인후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후 호남 지역이 주자학 연구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인후는 그해 6월 홍문관부수찬 겸 경연검토�관이 되었는데, 東宮殿 방화 사건이 일어나자 차자를 올려 기묘사화를 일으킨 심정

등을 소인으로 지목하고 화를 당한 조광조 등의 신원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는 부모 봉양을 이유로 외직인 玉果縣監에 나아가야 할 정도로, 이미 대비인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발호로 사회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김인후는 얼마 후 1544년(중종 39) 중종이 즉자 제술관으로서 다시 상경하였다. 이때 그는 대비전에 있는 인종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본인도 처방에 동참할 것과 인종의 처소를 옮길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약원의 직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고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김인후는 옥과현감으로 되돌아갔으나, 곧바로 7월에 새로운 사림정치를 기대하였던 인종이 승하하였다. 그는 인종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지나쳐 통곡하다가 실신하였고, 이로 인해 병이 생겼다.¹⁾ 이어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와서는 다시는 출사하지 않고 매년 인종의 기일인 7월 1일에는 마을 남쪽의 卵山에 올라가 북을 바라보며 온종일 통곡하였다. 명종이 즉위하고 을사사화가 일어난 이후 김인후에게 공조정랑, 성균관전직, 홍문관교리 겸 경연시독관 춘추관기사관, 성균관 직강 등이 연속 제수되었으나 신병을 이유로 모두 사양하였다. 인종이 죽은 뒤 인종에 대한 의리를 고집하고 끝내 출사하지 않았던 것이다.

고향에 돌아온 지 3년 뒤인 1548년에는 처가가 있는 순창 점암촌으로 옮겨 거처하였다. 그는 이곳에 訓蒙齋라는 초당을 짓고 학생들을 강학하였는데, 정철, 조희문, 양자징, 기효간, 변성온 등이 이곳에서 수학하였다고 한다. 서재 아래 靈江가에 있는 바위에서는 문인들이

대학을 배웠던 곳이라고 하여 오늘날에도 ‘大學巖’으로 부르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1549년 「大學講義跋」을 썼고, 정지운의 천명도를 보고 자신의 천명도를 작성함으로써 성리학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여 나갔다. 이 무렵 그는 인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시와 술로 방황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성리학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인후는 1549년 가을에 부친상을 당하자 다시 장성에 돌아왔다. 그는 이곳에서도 문장 활동뿐만 아니라 성리학에 깊이 천착하였는데, 1556년에는 서경덕의 「讀周易詩」를 읽고 차운시를 지어 서경덕의 학문이 下學을 소홀히 하고 頓悟로 이끌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였고, 1557년 「太極圖說」과 「西銘」등을 깊이 숙고하여 「周易觀象篇」과 「西銘事天圖」를 지었다. 성리학 연구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 무렵 예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家禮考誤』를 저술하여 주자가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 주었다.

당시 김인후의 성리학에 대한 조예는 당대의 학자들에게 그 시비를 판가름해 줄 정도로 뛰어난 것이었다. 1558년 고봉 기대승이 찾아와 일제 이항과 자신의 학설에 대한 시비를 묻자, 태극과 음양을 一物로 보는 이항의 설이 잘못되었으며, 이를 비판한 기대승의 의견이 낫다고 평하였다. 그리고 나흠순의 인심도심설을 비판함으로써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소재 노수신의 설을 반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얼마 후 김인후는 병을 얻어 1560년 타계하였다. 죽기 전 유언으로는 자신이 죽으면 을사 이후의 관직은 쓰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인종 사후 끝내 출사하지 않고 절의를 지키려고 했던 올곧은 선비였던 것이다.

3. 필암서원 건립과 사액

필암서원이 건립된 시기는 1590년인데, 그때 호남 지역도 사람들의 지배체제가 확고해지면서 당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원 건립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필암서원이 건립될 무렵 호남 지역 서원 건립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1560~90년대 호남 지역 서원 설립 현황²⁾

군현	서원이름	설립연대	배향인물
순천	玉川書院	1564	金宏弼
능주	竹樹書院	1570	趙光祖
태인	南阜書院	1577	李恒
전주	華山書院	1578	李彦迪
광주	月峰書院	1579	奇大升
남원	古龍書院	1583	盧楨
나주	景賢書院	1583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李彦迪, 李滉
전주	西山書院	1586	崔漢, 崔德之, 李繼孟
강진	瑞峰書院	1590	李後白
장성	筆巖書院	1590	金麟厚

이 표를 통해 호남 지역은 연산군 때 무오사화로 순천에 유배를 왔다가 사사당한 김굉필을 모신 옥천서원이 1564년 최초로 건립되고 1568년에 옥천이라 사액되었으며, 다시 기묘사화로 능주에서 사사된 조광조를 모신 죽수서원이 1570년 건립되고 곧바로 사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전라도 지역에서 서원 건립이 활발해지고, 점차 사화를 당한 인물 등에서 성리학 발전에 공헌한 인물로 배향 인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제향 인물을 통해 학통을 천명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필암서원도 이러한 서원 건립 추세에 맞추어 건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성에서도 서원이 세워지기 직전인 1585년(선조 19) 향안이 작성되고 鄉約이 시행되는 등 사족지배체제가 공고해지기 시작하였다.³⁾ 이러한 과정에서 1589년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던 윤두수가 서원 건립을 발의하고, 이어 정철이나 장성 유림들의 협조를 통해 필암서원이 건립되게 된다.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필암서원은 대개는 김인후가 타계한 지 30년 뒤인 1590년에 문인들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김인후의 직접 훈도를 받은 錦江 奇孝諫(1530~1593), 壺巖 卞成溫(1540~1614), 이이의 문인인 望菴 邊以中(1546~1611) 등 호남 선비의 발의로 장성을 기산리(조선시대 장성부 邑西面) 外岐山 鰲山 남쪽에 처음 세워졌다는 것이다.⁴⁾

그러나 후일 필암서원이 1624년 중건되었을 때 장성 출신인 秋潭 金友伋(1574~1643)⁵⁾이 지은 「필암서원중건상량문」에서는 필암서원 건립을 梧陰 尹斗壽(1533~1601)가 맨 처음 발의하였고, 정철이 배알하였다고 하였다.⁶⁾ 또한 김우급은 윤두수가 김인후의 덕을 사모하였다고 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읊조렸다.

필암서원에서 윤상국 두수를 생각함.

담옹의 충절은 마음에서 우러났는데, 사묘는

쉴쉴히 들관 물가에 서 있네.

末路에 어진 이 존경하는 사람 없더니, 지금
도 공연히 오음 한 사람이라 말하네.

이 시를 통해 윤두수가 평소 김인후의 덕을 숭양하였던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 윤두수는 1587년 6월 관찰사로 부임하여 1588년 6월까지 1년 간을 전라도 각 지역을 순시하였다.⁷⁾ 이때 윤두수는 김인후가 태어나고 말년을 보낸 곳에 서원이 없는 것을 한탄하였을 것이며, 이에 정철이나 호남 지역 선비들에게 그 뜻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우급은 필암서원 건립이 윤두수와 정철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였고, 필암서원 중건 때에 이르러서 호남 사람들이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원 건립이 지방 사람의 협조가 없이는 곤란하므로, 중앙의 윤두수와 정철 외에도 지방에서도 전술한 김인후 문인들의 참여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도 김인후의 손자인 南重, 외손인 梁千會, 梁千頃(하서 김인후 문인 양자정의 아들), 吳希吉, 기대승의 아들 奇孝增 등이 건립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서인으로 자정한 인물들인데, 필암서원 건립이 1589년 기축옥사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1588년 윤두수가 발의하자 기축옥사 이후 서인들의 결속을 위하여 김인후의 문인들이 필암서원 건립을 적극 서둘렀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유재란으로 인해 필암서원이 소실되자, 1624년(인조 2) 문인들이 다시 하서 김인후의 학문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선사와 후학 간의 학문적 연계성을 맺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원의 복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때 필

암서원은 옛터(장성읍 기산리)에서 황룡면 필암리 증산동으로 자리를 옮겨 이설하였다. 상량문은 전술하였듯이 김우급이 지었으며, 건립된 이후 호남 지역 사람들이 매년 향사를 지냈다.

이어 필암서원에서는 서원의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사액을 요청하였다. 1658년(효종9) 김인후의 문인 吳希吉(1556~1623)의 종질 吳以翼(1618~1666)을 소두로 전라도 유생들이 연명 상소를 올리자, 그 이듬해인 1659년(효종10)에 筆巖이라는 사액을 내렸다. 그리고 3년 뒤인 1662년(현종3)에는 현종이 어필로 ‘필암’이라는 사액을 직접 내리고 예관을 보내 치제하였다. 그리고 김인후에게는 1668년에 이조판서 및 양관대제학으로 증직하였으며, 1669년에는 文靖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道德博文의 文이요, 寬樂令終의 靖이란 뜻을 취하였던 것이다.

4. 필암서원 이건과 위상 강화

필암서원은 사액된 이후 1672년(현종13) 3월에 이르러 현 필암서원 소재지인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로 다시 옮겨 짓게 되었다. 1671년 여름 장마에 院宇와 諸室이 홍수에 무너져서 그 이듬해 1672년 3월에 현 위치로 이건하였던 것인데, 한편으로는 사액서원답게 면모를 일신하고 규모도 늘릴 목적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이건에는 김인후의 후손 김형지와 외손인 李實之(광산인)를 비롯하여 朴升華(밀양인), 奇挺然(행주인) 등이 노력하였다. 당시 서원 장의이던 송백당 이실지는 서인의 영수인 원장 宋浚吉(1606~1672)에게 편지를 보내 이건 문제를 협의하였고, 송준길은 장성부사 金世鼎(1620~1686)과 협의할 것을 시

달하였다. 그리고 宋時烈(1607~1689)의 아우 宋時燾(1613~1689)가 마침 신임부사로 도임(1671~1674년 재임)하여 필암서원 이건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송시도는 장성부사로 재임하면서 필암서원을 옮겨 세우고 학자를 초빙해 士民을 교육하고 문풍을 진작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춘당 송준길이 「移建告由文」을 짓고 우암 송시열이 제문인 「移建後奉安河西金先生文」을 지었다. 이때 청절당, 진덕재, 송의재의 편액은 송준길, 학연루의 편액은 송시열이 썼다. 학연의 뜻은 정명도의 '廓然大公'에서 따온 말로 '마음이 넓게 탁 트여 크게 공평무사하다'는 말로서 김인후의 호연지기의 기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그리고 상량문인 「筆巖書院垓宇上樑文」은 장성의 사족인 松巖 奇挺翼(1627~1690)이 지었다.

당시 17세기 중엽 필암서원이 사액되고 김인후를 증직하고 시호를 내린 것은 당시 서인과 남인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서인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일환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인조반정으로 서인은 북인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였지만 17세기 후반 예송논쟁과 숙종의 한국정치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남인의 세력이 막강하였다. 이에 중앙의 서인이나 노론의 후원 아래 광주 지역의 서산유씨나 장흥고씨, 행주기씨, 광산김씨, 장성의 울산김씨 등의 노론 가문들이 서로 연대하고 다른 당파를 배척하였는데, 중앙에서도 향촌사회의 이러한 서인 사족들의 활동과 세력의 결집을 위하여 주요 서원에 대해 사액을 내리고 배향 인물에 대해 증직을 자주 내렸던 것이다.

이 무렵 필암서원에서는 서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 관청과 사족들의 협조를 얻기 위

해, 중앙의 명망 있는 노론계 인사를 원장으로 임명하였다. 필암서원의 원장 명단을 적은 『원장선생안』을 보면 송준길, 유척기, 김원행, 김이안, 김종수, 심환지, 홍직필, 송병선 등 당대의 명망가이자 노론계에 속하는 인물들이 원장을 맡고 있다. 원장은 명분상 직책이기는 하지만, 같은 당색의 중앙 고관을 원장으로 택정하고 그들의 지원 속에 서원의 정치력과 경제력을 보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필암서원은 원장 외에도 院貳 1인, 摺紳掌議 1인, 儒林掌議 2인, 色掌 2인 등의 임원을 두었다. 이 중 원이는 관찰사, 진신장이는 장성이나 광주, 담양, 부안 등 인근 지방의 부사, 군수 등이 맡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 역시 당파적 성향이 같은 관인을 중심으로 관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에 유용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필암서원에는 하서 김인후를 주벽으로 하면서도 鼓岩 梁子澂를 배향(추배)하고 있다. 양자징은 김인후의 제자이자 사위인데, 1786년(정조10)에 필암서원에 추배하였다. 최초의 발의는 1677년(숙종23)에 이루어졌다. 1677년(숙종23) 호남 선비 창평 정유달, 나주 나천추 등이 소를 올려 양자징을 필암서원에 배향하여 줄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서원 건립이 급격히 증가한 때였다. 게다가 양자징은 주벽인 김인후의 문인이자 사위라는 점에서 서원에 배향할 만한 인물이기기는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아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주장이 팽배했다. 또한 1703년(숙종29)에 전라도 생원 羅天衡(1658~?) 등이 소를 올려 김인후의 문인인 현감 양자징, 처사 변성운, 처사 기효간 등 3인을 필암서원에 추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역시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786년(정조 10)에는 전라도 진사 李敬緝(1775~?) 등의 상언에 따라 장성 유림들에 의하여 소청된 바 있던 양자징의 필암서원 추배가 허락되었다. 평소 김인후의 도학과 절의를 높이 평가한 정조가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후손을 채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사위이자 문인인 양자징의 추배가 허락된 것이다.

이후 필암서원은 1796년 김인후가 다시 정조에 의해 문묘에 종향됨으로서 大賢書院으로 한 단계 사회적 위치를 격상시키게 되었다. 이후 필암서원은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불구하고 무성서원, 포충사와 함께 전라도 지역에 존치된 원사 3개소에 들어 호남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5. 울산김씨와 김인후 후손

필암서원이 오늘날까지 존속되고 계속 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김인후 후손들의 공로가 크다. 하서 김인후의 후손과 울산김씨 문중에서는 필암서원의 원장과는 별도로 도유사나 별유사를 조직하여 필암서원의 각종 향사에 드는 비용과 필요한 재정을 돕고 있는 것이다. 김인후의 후손들은 김인후의 학문과 정신을 계승하여 김남중이나 김형지, 김기하, 김시서, 김수조 등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고, 오늘날에도 김병로, 김성수, 김연수 등 經世濟民에 뛰어난 인물들이 다수 배출되어 김인후의 현양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울산김씨의 시조는 신라 말 경순왕의 둘째 왕자인 鶴城府院君 德摯이며, 학성은 울산의 고향이다. 학성부원군은 경순왕의 고려 양위

에 반대한 마의태자의 뒤를 따라 금강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2세부터 13세까지 失傳이고, 17세 흥려군 穩(1348~1413)으로 이어진다. 김온은 부인이 여흥 민씨로 조선 太宗과는 사촌 동서 간인데, 조선 개국에 공을 세웠으나 태종의 처남인 민무구와 민무질의 옥사와 관련되어 화를 입게 되었다. 이에 그 부인이 세 아들 達根, 達源, 達枝를 데리고 1413년 무렵 장성으로 내려왔다.

이후 울산김씨는 이 삼형제의 후손들이 장파, 중파, 계파 등 3파를 이룬다. 장파인 達根系는 아들 대에 이르러 함안과 함평으로 옮겨갔고, 계파인 達枝계는 손자 俊이 진원 水流村으로 이거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계파가 가장 먼저 사족적 기반을 다져서 달지의 아들 處離 — 俊 — 應斗 — 百勻 형제 — 振秋 등 5대가 연이어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특히 김응두(1492~1522)는 1522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부응교, 光州牧使를 역임하였다. 하서 김인후는 중파인 達源의 후손이며, 김인후 이후 번성하여 울산김씨를 대표하게 되었다. 중파는 도합 16개 파인데, 그 중 하서 김인후 후손들이 9개 파를 형성하고 있다. 하서는 시호가 文正이므로 그 후손들을 문정공파라 하는데, 이들 9개 파의 파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울산김씨 문정공파 9개 파는 김인후의 손자 남중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김남중은 기대승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정유재란 때 기대승의 딸이 순절하자 함풍 이씨와 다시 혼인하여 4남 2녀를 두었는데, 형복, 형우, 형지의 후손들이 번성함에 따라 9개 파로 분파된 것이다.

먼저 장남인 형복의 후손들에 의해서 크게는 4파, 작게는 6파로 분파하였다. 형복은 창하와 태하 두 아들을 두었다. 창하는 다시 익서, 두서, 시서를 두었는데, 익서는 비변랑을 지냈으므로 그의 후손은 비변랑공파, 두서는 회암처사로 불리웠기 때문에 그의 후손은 회암공파, 시서는 호가 자연당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자연당공파로 분파하였다. 둘째 태하의 후손들은 맥동파로 불린다. 여기에도가 비변랑공파의 후손들이 다시 宗派, 莘坪派, 中坪派의 세 파로 분파하였기 때문에 모두 6개 파가 되는 것이다.

둘째인 형록은 무후하여 이어지지 않고, 셋째인 형우는 넷째인 형지의 2남 기하를 양자로 들여 뒤를 이었는데 기하의 호가 각재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각재공파로 불린다. 넷째인 형지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형지의 장남 명하는 화산처사로 불렸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화산공파, 차남 기하는 형에게 양자로 갔고, 삼남 태하의 후손들은 장성 월평에 정착하여 월평파로 불린다. 따라서 김인후의 후손, 즉 문정공파는 형복과 형록, 형지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모두 9개 파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김인후 현양과 필암서원 중건에 힘을 쏟았다.

6. 김인후 후손들의 현양사업

김인후의 후손들은 김인후의 문인들과 함께 김인후의 문집 간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김인후의 문집은 세 차례 간행되었는데, 먼저 초간본은 김인후의 문인인 月溪 趙希文의 주관으로 1568년에 간행되었다.⁸⁾ 김인후 사후 유고 십여 권과 西銘事天圖, 周易觀象篇 등의 詩書

가 남아 있었으나 화재를 만나 소실되자, 조희문의 주관으로 8년에 걸쳐 유고를 모으고, 白光勳이 抄書하고 전라도 관찰사 宋贊 등이 재목을 대고 판각하여 간행되었다. 이때 김종호는 부친의 시 수백 수를 구송하여 오늘날 김인후의 많은 시가 전해질 수 있게 하였다. 김종호 역시 부친의 뒤를 이어 시에 능하였는데, 오늘날에도 사암 박순이나 율곡 이이, 옥봉 백광훈 등이 김종호에게 남긴 시가 전하고 있다.⁹⁾ 김종호는 부친 김인후가 9세 때 복재 기준에게서 받은 붓을 평생 소중하게 여겨 잘 보관하였다. 吳億齡(1552~1618)¹⁰⁾에 의하면 김종호가 왜란이 일어나자 메고 다니던 행장은 없어지더라도 부친이 남겨준 붓은 잘 보존하였고, 이 붓은 종호의 아들 남중에게 다시 전해져서 90년 동안 옛 모습 그대로라고 높이 평가하였다.¹¹⁾ 이처럼 김종호가 시를 좋아하고 아버지의 뜻을 잘 따랐기에 『하서문집』이 다시 복원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어 김인후의 손자인 김남중은 필암서원 중건을 위해 노력하였다. 필암서원은 1597년 정유재란 때 불에 탔으나, 그 후 26년 뒤 1624년에 현 서원에서 5리쯤 떨어진 甌山 밑에 重建되었는데, 이때 중건 상량문을 김남중의 평생 친구였던 김우급이 썼다. 김우급은 김남중이 죽자 만사를 지어 다음과 같이 석별의 정을 노래하였다.

취옹을 애도함¹²⁾

두 집안의 교의는 전현을 본받아서
어린 때부터 상종하여 노년에 이르렀네
삼일이 멀다 하고 자주 왕래하였으며
한마디 말도 같이 본받고 오로지 덕행을 닦

아 왔거만

누가 알았으리오 천고의 작별이 될지

밀어지지 않는구려 음성과 모습이 구천 멀리
계시는 것

애석한 것은 고아와 홀어미를 일찍부터 부탁
받았건만,

여생을 오래도록 병으로 끌고 있으니

시에 나오는 취옹은 김인후의 손자 김남중을 가리킨다. 김남중의 호는 취옹, 자는 汝兼이었던 것이다.

시를 통해 김남중과 김우급 가문의 교의는 전대부터 시작되어 자신의 대에도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김남중이 죽으면서도 자식들을 당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우급은 상량문에서 필암서원의 중건이 여러 어진 분들의 도움으로 건립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대의 호남 지역 명사들과 교분이 두터웠던 김남중이 중건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어 필암서원의 사액과 하서 김인후의 증직 및 시호가 내려온 것에는 김남중의 4자 김형지의 노력이 컸다.¹³⁾ 1675년 김형지가 타계하자 박광후는 김형지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였다.

어른의 뜻은 오직 선조의 업적을 찬양하는 데 있었으므로 무더위 빚속이나 큰 추위를 기탄하지 않고 諸賢의 문하를 출입하면서 선조의 업적을 기어이 찬양한 끝에 조정에서 관작을 추증하여 영광스럽게 해주고 시호를 하사하여 포상해 주었습니다. 이는 비록 백세의 공론에서 나온 것이지만 또한 우리 어른께서 여러모

로 주선하신 힘이었습니다.¹⁴⁾

김형지가 당대의 학자들에게 나아가서 선조, 즉 하서 김인후의 업적을 찬양하여 관직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려올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하서 김인후에게 1668년 이조판서 및 양관대제학을 증직하고 1669년에는 文靖 시호가 내려던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당시 김형지가 만난 인물들은 1658년 필암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 김수항 등¹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김형지는 송시열, 박세채에게 다시 김인후의 신도비문과 행장을 부탁하였다.¹⁶⁾ 文靖 시호를 문서로서 재확립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김형지는 1672년 6월 무렵 상경하여 박세채의 집을 방문하였다. 이때 박세채는 喪中이라서 김형지를 만나지 못했으나 행장을 가을까지 써보내겠다고 하였다.¹⁷⁾ 이어 김형지는 박세채의 편지를 갖고 회덕으로 가서 송시열을 만났는데,¹⁸⁾ 이때 신도비에 대해서 송시열에게 부탁을 한 것 같다. 이후 박세채는 김형지가 보내준 김인후의 문집과 연보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인종의 죽음과 관련한 姜公望 부분에 대한 확인과 퇴계와 율곡의 평가를 바탕으로 1672년 10월에 행장을 작성하였다.

김형지 이후로는 각재 김기하, 자연당 김시서가 김인후 선양 사업에 적극 나섰다. 이들은 당대 노론의 영수였던 우암 송시열과 문곡 김수항으로부터 신도비명을 받아내고, 문집 중간에 도움을 받았다. 먼저 신도비명은 송시열이 김형지의 부탁을 받았으나 겨를이 없어 짓지 못하다가 1680년 해배된 이후 각재 김기하,

자연당 김시서의 편지와 송백당 이실지의 방문을 받고 1682년 비문을 완성하였다. 김기하는 김형우의 뒤를 이었으나 생부가 김형지이며, 자연당 김시서는 김형지의 장형인 김형복의 손자이고, 이실지는 김형지의 처남인 이규명의 아들이다. 이실지는 김인후의 후손들과 상의하여 신도비명을 받기 위해 1682년 3월 11일 송시열을 찾아가서 신도비명의 찬술은 본손들의 뜻을 알리고, 신도비명 찬술에 필요한 新舊의 行狀, 年報, 상소문 등을 모두 전달하였다. 이 때 송시열은 김기하와 김시서가 김인후의 뒤를 이어 학행이 뛰어났다고 극구 칭찬하였고, 김기하와 김시서, 이실지는 모두 1689년 정읍에서 송시열의 임종을 지켜보았다. 김기하는 司書, 이실지는 치관(治棺)을 맡아 장례를 치렀다.

신도비명에서 송시열의 김인후에 대한 평가는 노론 계열의 문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황윤석은 『이재난고』에서 “하서 선생의 도학과 문장, 절의의 성대함은 국조 인물 중에 제일이다. 을사년간의 일에 이르러서는 “비록 퇴계와 회재 두 선생 일도 또한 양보하는 자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율곡과 사계, 우암 이래 정론이 되었다.”¹⁹⁾라고 하였다. 이는 송시열이 김인후의 신도비명에서 “국조의 인물 중 도학과 절의, 문장에 있어서 대개 품목의 차이가 있어서 세 가지를 겸하고서 치우치지 않은 자는 거의 없다. 하늘이 우리 동국을 도우셔서 하서 김 선생을 낳으셨으니 겸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어 『하서문집』의 중간본이 김수항의 주관하에 1686년 간행되었다. 김수항은 김인후의 문집이 별로 전해지지 않은 것을 개탄하여

김기하, 金時瑞, 外曾孫 李實之 등과 문집 重刊을 도모하였다. 김기하와 김시서는 김수항의 문인이기도 하여 몽와 김창집, 농암 김창협, 삼연 김창흡 등과도 교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들의 협조도 얻었다. 김수항은 글이 모이자 김시서를 박세채에게 보내 편집하게 하여, 초간본에 附錄을 첨부하여 14권으로 재편하고 別集 9권을 추가하였다. 문집 판각을 위해 김수항은 전라관찰사나 장성부사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문집을 판각하는 일은 착수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일이 지체되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백이 또 교체되니 이 때문에 또 지체될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백이 갈 때에 또한 마땅히 간절히 부탁하면 그 이루는 공력이 어찌 앞 사람과 차이가 나겠습니까. 두 고을에서 새기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으나 대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곳에서 함께 일하는 것도 자세하지 않으나 그만 둘 수 없으니, 이 또한 새로운 방백(新伯)²⁰⁾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다만 오산, 즉 장성의 새로운 수령은 바로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일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신 인본은 잠깐 보니 잘못된 곳이 없었으나 때마침 鞠獄을 처리하느라 졸지에 여가가 없었습니다. 종당 마땅히 자세히 보겠습니다. 묘표문자도 마땅히 뒤를 기다려 써서 올리겠습니다. 임술 8월 8일 김수항(文谷)²¹⁾

당시 영의정이었던 김수항이 전라관찰사로 부임하는 李師命에게 문집 판각을 위해 협조

를 부탁하겠으나, 새로 부임하는 장성부사 朴鎭圭(1682년 8월 28일~1685년 7월 2일 재임)는 잘 모른다고 걱정하였다. 박진규는 대사간 李元禎과 함께 송시열의 예론을 비판하는 등 남인으로 활동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²²⁾ 이어 김수항은 공무에 여가가 생기면 印本을 살피고 묘표도 작성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김수항의 노력을 거쳐 이실지의 청으로 송시열이 서문을 쓰고 김시서의 청으로 박세채가 발문을 완성함에 따라 1686년 하서집이 중단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김인후의 후손들은 대부분 송시열이나 김창협 계열의 노론에 속하게 되었다. 전술하였던 김형지와 그의 아들 김기하, 김기하의 아들 義瑞, 자연당 김시서, 致瑞의 아들 宅賢, 택현의 손자 文在 등은 당시 대표적인 서인 내지 노론 계열의 인물들과 교유하거나 학통을 이어갔다. 김형지, 김기하, 김시서는 전술한 바와 같고, 김희서는 김창협의 문인, 김문재는 송명흠의 문인이며, 김택현은 신임사화 때 호남유생 1,200명을 대표한 소두로서, 송시열과 권상하를 무고한 자들을 치죄해 줄 것과 고암서원을 복설할 것, 여산 죽림서원에 권상하를 추배할 것을 요구하였다.²³⁾

이처럼 울산김씨가 노론의 색채를 분명히 함에 따라 하서 김인후에 대한 현양사업도 노론 측에서 적극성을 띄게 되었다. 도암 이재는 평소 문인들에게 “우리 조정에서 공론으로 응당 문묘에 봉향해야 할 사람은 오직 하서뿐이다.”²⁴⁾라고 하였으며, 이재의 문인 김원행은 문인들에게 다음과 발언하였다.

“‘지금 종사되지 못한 선현 가운데 오직 하서

만이 우뚝하여 비할 사람이 드물다.’라고 탄식하고서 ‘호남은 하서에 대한 그 존송하는 바가 영남의 퇴계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항상 학자들을 대하면 개탄하였다.”

즉, 하서 김인후가 문묘 종사되어야 하는데, 영남 사람처럼 존송하는 바가 적다고 은연중 그러한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김원행의 뜻에 따라 1779년 필암서원에서 강회가 열리고, 김인후를 종향하자는 의논을 하였다. 이어 1780년 겨울에 김인후를 문묘에 종향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게 되어, 광주 의 생원인 朴河鎭²⁵⁾이 발의하고, 필암서원에 창평의 진사 梁學淵²⁶⁾이 통문을 보내 김인후의 종향을 요청했으며, 다시 창평의 생원 鄭桔²⁷⁾이 성균관에 통문을 보냈다.²⁸⁾ 그러나 정길이가 보낸 통문은 성균관에서 논의되지 못하였다. 하서 김인후의 절의는 드러났으나 사문의 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통문에 착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하서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하자는 논의는 정조 10년에 다시 일어났다. 이 무렵 정조는 인종과 인종의 비 인성왕후를 모신 효릉을 참배한 후 인종에게 절의를 다한 김인후에게 예관을 보내 제사 지내게 하고, 사순 직후를 효릉참봉에 제수하였다. 정조의 이러한 조치는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하자는 여론이 일어나기에 충분하였다. 그해 8월 유생 朴盈源 등이 상소를 올려 김인후가 절의뿐만 아니라 공자와 주자의 학술을 널리 선양시킨 사문의 공로가 크다고 하여 하서 김인후의 문묘 종향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하서를 존송하고 있지만 문묘 종향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답하였고, 이후 정조 10년 겨울, 13년, 14년 각각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으나 같은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아직 하서 김인후를 문묘에 종향시킬 수 있는 여론이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이에 김인후의 후손들은 황윤석²⁹이 지은 『이재난고』에 의하면 直休, 益休, 直賢 등이 자주 상경하여 김인후의 문묘종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은 장성과 서울을 왕래하면서 필암서원 운영이나 문묘종사와 관련하여 김원행의 아들 金履安이나 김창집의 아들 金用謙, 김익후의 처남인 황윤석 등과 상의하였으며, 김인후의 절의와 문장, 도학을 선양하기 위하여 문집을 새로 인출하여 서울의 여러 사대부 집안에 배포하였다.

이러한 호남 사림과 김인후 후손의 계속적인 노력, 그리고 정조의 의지가 반영되어 정조 20년 김인후가 드디어 문묘에 종향되게 되었다. 당시 충청 지역 노론계에서는 조현과 김집을 문묘에 종향하려고 세 번씩이나 상소를 올렸으나, 정조는 “도학, 문장, 절의를 모두 겸하되 치우치지 않는 인물은 하서이다.”라는 송시열의 평가를 토대로 가장 먼저 김인후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질책하였다. 이러한 정조의 의도는 학문과 정사를 총괄하는 군사의 지위로서 군주의 의리 주관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²⁹⁾

이어 정조의 의도를 간파한 유생들은 하서 김인후를 문묘에 종향시키자는 상소를 잇달아 올렸다. 6월에는 方外 유생 金懋淳, 7월에는 호남삼도 유생 李鍾祐, 팔도 유생 蔡弘臣, 8월에는 京外 유생 鄭大鉉과 李奎南 등의 상소가 잇달았다. 이때에도 채홍신이 김인후 외에도 조현과 김집을 문묘종향하자고 주장하자, 정조는 조현은 갑작스럽게 문묘 종향을 의논할

수 없고, 김집은 김장생이 이미 문묘 종사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간에 올리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반대하였다. 이에 다시 유생들은 9월에 세 차례의 소청을 통해 김인후를 문묘에 종향하자고 주장하였고, 노론계 대신들도 이에 동조하자 정조는 최종적으로 김인후의 문묘종사를 허락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김인후의 종향 기준을 도학, 절의, 문장에서 도학으로 채택하여 예문제학 具庠이 지은 교서를 통해 김인후의 문묘배향이 해동의 염계이며 호남의 수사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또한 정조는 그해 겨울 김인후의 시호를 조광조, 송시열, 송준길과 똑같은 文正으로 개정함으로써 김인후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文은 博聞道德, 正은 以正服人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김인후의 문묘종향과 시호 개정은 정조의 군주권 강화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정조가 김인후를 배향하는 목적이 이단을 물리쳐 민심을 안정시키고, 士風을 격려하는 기회를 삼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정조의 崇正學 闢異端의 이념이 작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당시 호남 지역은 1791년 10월 전라도 진산의 남인 출신인 尹持忠(1759~1791)과 그의 외종형 權尙然(1751~1791) 등이 부모의 제사를 거부하고 신주를 불태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의 행위는 곧바로 조정에 알려져 윤지충과 권상연이 사형에 처해졌지만, 1795년 正言 李安默이 호서와 호남 지역에 천주교가 만연해 그 무리들이 마구 불어 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었다. 이러한 천주교의 유포에 대해 정조는 정확을 보위하라[衛正學]는 세 글자가 비록 오활하고 먼뚫하지만 실로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하였던 점에서, 김인

후의 문묘종사 또한 사품을 격려하고 이단을 물리치는 계기를 삼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어 정조는 1797년 김인후의 문집을 중간 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김인후의 글이 다시 문체별로 새롭게 편집되고 증보되었다. 여기에 김일주(金日柱)가 정리한 年譜를 첨부하여, 원집 12권, 부록 4권으로 재편해서 1802년에 3刊하였다. 하서 문집은 이후로도 계속 보완되었다. 1916년 후손 金魯洙 등이 『河西全集』에서 빠진 저자의 시문과 부록문자를 모아 續編을 간행하였는데, 鉛活字로 간행되었으며 발문은 김성수의 부친 金暲中이 지었다. 이어 1938년에는 金魯洙가 속편을 증보하고 金甯漢의 발문을 받아 1940년에 2책의 목판본으로 重刊하였다. 부록에는 『弘齋全書』에서 초록한 하서 김인후 관련 기사, 湖堂修契錄, 刊集有司錄 등을 수록하였다.³⁰⁾ 그리고 1993년에는 하서 김인후의 후손들의 노력으로 『河西全集』이 3책으로 국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때 발문은 김인후의 14대손으로 都有司였던 金東準이 지었다.

7. 맺음말

지금까지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현양사업을 중심으로 필암서원의 역사와 울산김씨의 활동에 관해 살펴보았다. 김인후는 인종과 명종대에 도학과 절의, 문장을 겸비한 학자로서, 조선의 많은 학자들은 물론이고 문장가, 君師를 자처한 정조의 추앙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이에 김인후를 모신 필암서원은 1590년 건립 당시부터 중앙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했으며, 이 지역 사람들과 울산김씨의 적극적인 현

양사업으로 1659년(효종 10)에는 사액서원이 되었고, 1672년 필암리에 이진하여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 특히 송시열이 신도비를 작성하여 김인후가 도학과 절의, 문장을 치우침 없이 겸전한 인물로 추앙한 뒤, 이재와 김원행 같은 노론계 학자들은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되어야 할 인물로 간주하였다. 이에 정조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김인후를 해동의 周子이며 호남의 공자라고 칭송하였으며, 김인후의 문묘종향을 통해 崇正學 闢異端의 정신을 고양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에도 필암서원은 음력 2월과 8월 중정에 올리는 춘추제례, 매달 올리는 삭망 분향례, 매해 정초에 올리는 正謁 등 다른 서원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교육의 측면에서도 ‘필암서원 선비학당’을 개설하여 일주일에 3회씩 학생들을 모아 강의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도 김인후가 강조하였던 소학과 대학을 비롯해서 사서 등 유교경전과 김인후 등 장성 출신 학자들의 문집 등을 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제사나 학술을 돕기 위해 1953년 이래 장성을 비롯한 호남 지역 유림들은 山仰會를 조직하여 김인후의 도덕, 문장, 절의를 심층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다. 산양회에서 매년 향사에 참여하는 한편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보 발간을 주관하고 있다. 또한 서원 운영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암서원 원장 밑에 김인후의 후손이나 울산김씨 문중에서 선출된 도유사나 별유사를 두고 있다. 원장은 경향을 막론하고 학덕이 훌륭한 인물을 내세워서 서원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서원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인 뒷받

침은 김인후의 후손들이 담당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장성군청이라고 할 수 있다. 필암서원은 장성군청과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장성군청의 도움으로 2008년 5월 21일에는 유물전시관, 2010년 3월에는 선비문화 교육 체험장인 集成館을 개관하였다. 이에 다른 서원들의 경우 제향의 기능만을 간신히 유지해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필암서원에서는 산양회, 문중 조직, 장성군청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해서 김인후의 도학과 절의정신을 오늘날에도 계승해가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에게도 유교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끊임없이 자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 각주 |

1) 김인후의 손자 김남중이 지은 최초 연보에는 7월 1일 인종이 죽자 姜公望이 음식을 맛보고 먼저 먹어 보지 못함을 울면서 탄식하였고, 權檣도 대비가 이럴 수 있는가라고 울면서 탄식하였다고 하여, 인종이 독살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金鎭雄, 『麥村公의 追孝事業』, 『仁宗昇遐와 金河西節義』, 명성출판사, 1996, 27~28쪽의 인용문 참조).

2) 윤희면, 「전라도 장성 筆巖書院의 정치사회적 기능」, 『全南史學』 17집, 2001, 63쪽, <표1> 참조.

3) 같은 글, 64쪽.

4) 『筆岩書院誌』 卷1, 沿革條.

5) 김우급은 자는 士益, 호는 秋潭, 秋潭居士, 본관은 光山이다. 조부는 金景遇이고 부친은 通政大夫 金大成이고 생부는 金大振이다. 1612년(광해군 4) 식년시

에서 進士 3등 8위로 합격하였다. (『한국역대종합인물정보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

6) 김우급은 필암서원 상량문에서 하서는 生知의 자질로서 인의를 깊이 실천한 인물로 안자와 증자에도 뒤지지 않을 것이고, 주자와 정자와도 나란하다고 추앙하였다. 또한 인종이 승하한 이후 벼슬하지 않고 매년 산에 올라가 올었으니, 그 의로움과 충성심을 알 수 있으며, 그의 필적이나 시구가 養性하지 않으니, 그 재능과 덕은 후인의 표본이 되고 스승이 될 만하므로 일찍이 사당을 세워 尊賢의 장소를 삼았는데, 그 논의는 오음 윤두수가 먼저 하였고, 사당의 배알은 송강이 뒤를 이어 하였다(議論則梧陰首建 謁見則松江踵來)고 하였다(김우급, 같은 책, 『筆巖書院上樑文』).

7) 金亨祉, 『麥村遺蹟』 卷5, 「맥촌공연보」, 현종 13년 임자(1672).

8) 초간본은 賦辭 1권, 詩 12권, 雜著 2권으로 편찬되었으며, 趙希文의 序가 들어 있다. 김인후는 유고 십여 권과 西銘事天圖, 周易觀象篇 등의 詩書를 남겼으나 화재를 만나 소실되자, 김인후의 문인인 月溪 趙希文이 주관하여 8년에 걸쳐 유고를 모았으며, 白光勳이 抄書하고 전라도 관찰사 宋贊 등이 재목을 대고 판각하게 하여 간행되었다. 이때 문집의 교정과 판각의 감독을 門人인 梁子澂과 申覺이 맡았으며, 김인후의 아들 金從虎가 口誦한 시 수백여 수, 문인 盧適, 奇孝諫, 卞成溫 등이 수집한 글도 포함되었다. 다른 문인들에게 흠어져 있는 글은 후일을 기다려서 別集으로 간행하기로 하였다(『河西全集』 河西先生全集舊序(趙希文)).

9) 박순과 이이, 백광훈이 남긴 시는 다음과 같다. “憐君自是飲中仙 頭上朝簪亦偶然 日給三升無骨相 未如歸當酒家眠(朴淳, 『思菴集』 卷1, 七言絕句, 金奉事從虎 以飲餞被論罷歸 贈之以詩)”; “秋氣攪幽思

無愁還有愁 況值送佳客 摻裾臨道周 典刑懷往哲 形勝憶南州 更切云亡歎 丈夫雙淚流”(李珣,『栗谷全書拾遺』卷1, 詩,「次河西韻贈金季義從虎河西子」); “一年春盡日 千里遠行人 楊花似別恨 風處自紛紛”(白光勳,『玉峯詩集』上, 詩○五言絕句「三月晦別金季義名從虎」).

10) 오억령(1552~1618)의 본관은 동복, 자는 大年, 호는 만취(晩翠)이다. 아버지는 사옹원직장 世賢이다. 1582년(선조 15)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검열·호조좌랑·이조좌랑 등을 지냈다(『한국역대종합인물정보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

11) 吳億齡,『晩翠文集』卷2, 五言律詩.

12) 『秋潭集』卷七「輓醉翁」.

13) 김형지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미 이해준, 「하서 김인후의 현양활동」,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문학사상』, 광주광역시, 1995과 金鎮雄, 「麥村公의 追孝事業」, 『仁宗昇遐와 金河西節義』, 명성출판사, 1996에서 이미 분석한 바 있으며, 본고의 작성도 이 논문에서 크게 의지하였음.

14) 朴光後,『安村集』卷4, 祭文,「祭麥村金丈亨祉文」, “丈之志唯在揚先烈 不憚暑雨與祁寒 出入諸賢之門 期闡先祖之業 以至增爵而榮之 賜諡而褒之者 雖出於百世之公論 而亦吾丈周旋之力也”.

15) 『麥村遺蹟』卷5, 「맥촌공언보」, 효종9년(1658, 38세).

16) 朴光一,『遜齋先生文集』卷8, 行狀, 「處士金公行狀」, “一以河西先生實蹟未盡闡揚爲憂 洒掃於尤菴先生之門 請其行狀墓文 以爲不朽之圖 而事與計違 以未及請諡延諡爲至恨”.

17) 『麥村遺蹟』卷3, 與麥村書(壬子六月二十七日), “所屬先狀 若延殘喘 得至秋後 則敢不奉教周旋 以償追孝之萬一哉”.

18) 『麥村遺蹟』卷3, 與麥村書(壬子七月五), “下鄉之

期 定在數日後 抵懷簡封 謹依傳納”.

19) 黃胤錫,『頤齋亂藁』, 庚寅年(1780) 11月 9日, “謹按河西先生 道學文章節義之盛 爲國朝人物最 至若乙巳間事 雖退晦二先生 亦覺讓頭 此栗沙尤 以來定論也”.

20) 새로운 방백은 李師命이다. 이사명은 1682년(숙종 8) 9월부터 1685년(숙종 11) 5월 병으로 체직될 때까지 전라관찰사를 지냈다(李東熙編,『朝鮮時代 全羅道の 監司·守令領名單-全北篇』,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21) 『覺齋遺稿』附錄, 「金壽恒書簡」(1682年 8月 28日).

22) 朴智賢, 「朝鮮後期 長城地方 士族의 動向」,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29쪽.

23) 같은 글, 40쪽.

24) 『頤齋亂藁』, 庚寅年(1780) 11月 9日, “近世則寒泉常言 我朝公論 應享文廟者 惟河西而已”.

25) 朴夏鎭의 자는 養浩亭, 본관은 순천이며, 광주 출신이다. (『한국역대종합인물정보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

26) 梁學淵의 자는 士愚, 본관은 제주이며, 창평 출신으로 양산보의 후손이다. (『한국역대종합인물정보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

27) 鄭桔의 본관은 영일이며, 창평 출신으로 정철의 후손이다. (『한국역대종합인물정보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

28) 『頤齋亂藁』卷16 1780년 12월 22일, “昨年秋冬之交 有自南來者 言河西從享之論 果復發自朴上舍 而通文于本院者 昌平梁上舍學淵也 自本院通文于太學者 鄭上舍桔 亦昌平人也”.

29) 김성운, 『조선후기 당평정치연구』, 지식산업사, 1998, 206~208쪽.

30) 신승운, 『하서전집(河西全集)』해제,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

공동체는 탁월한 개인보다 지혜롭다

강위원(여민동락공동체 대표살림꾼.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

1. 머리말

운치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자못 떨립니다. 저는 아직 많이 거칠고 부족합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삶’과 ‘공동체’에 대해 누군가에게 웅숭깊은 말씀을 나눌 만큼 영글지 않은 탓입니다. 성현의 말씀에, 몸으로 살아낸 얘기 외에는 어디 가서 입으로만 수다 떠는 일을 절대 금하라 했거늘, 제가 이를 익히 알면서도 다시 후회할 바를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강의라는 이름으로 뭔가 고백하는 일처럼 무서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입니다. 특별한 얘기를 그럴싸하게 풀어내는 지적 호기보다는, 제가 사는 삶의 방식과, 함께 하고 있는 농촌공동체인 ‘여민동락’ 그리고 광주의 ‘더불어樂’(제가 올해 1월까지 관장으로 있었던 노인복지관)에 대한 소개로 강의 내용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작은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여민동락공동체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 있고, 설립한 지 10년째를 맞았습니다. 더불어樂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고, 광산구 운남동에 있습니다. 제가 관장으로 부임해서 5년을 운영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민동락’과 ‘더불어樂’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여러 얘기를 나뉘보겠습니다.

2. 단순한 것이 최고다.

‘어떻게 살 것인가,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오래 전 일입니다. 10여 년 전 여민동락공동체 설립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책방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했다기보다 책들을 모두 처분했다는 게 맞겠습니다. 한참 책장에 책 꽂는 재미에 빠져 있을 때였고, 그 수많은 책으로 꽤나 폼 잡고 살던 나이였습니다. 문득 비좁은 집에 무슨 책을 이리도 많이 전시(?)해놓고 살았는지 반성했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전시였습니다. 종이와 책을 위해 희생되는 나무와 숲을 생각하면 이 또한 못할 짓입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한다면 책이라는 것도 사실은 개인 서재를 꾸며놓고 독점할 일이 아니라, 도서관을 통해 두루 함께 읽어야 할 공공재임이 분명합니다. 먼지 쌓인 책들을 무슨 ‘지식 자량’이라도 하듯 빼곡히 쌓아놓고 폼 잡았던 게 얼마나 부끄럽던지.....

트럭에 실어 한 차 가득 필요한 연구소에 기증하니 개운했습니다. 좁은 집이 넓어졌습니다. 책이 빈 책방엔 사진과 그림 그리고 화초와 찻상을 넣었습니다. 소박하고 예쁜 명상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책장엔 손때 묻은 책과 신간 몇 권 남겨뒀을 뿐이지만, ‘읽고 쓰고 대화하고 생각하는 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잔잔하게 음악을 틀고 지그시 눈을 감으니 집 속의 어엿한 ‘카페’가 따로 없습니다. 무엇보다 마냥

좋아하는 아내 표정을 보니 흐뭇합니다.

한때 정치범으로 여러 해 징역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0.75평 독방살이는 늘 공간과의 전투입니다. 옥중생활도 오래되면 살림이 늘어나는 법이라, 한정된 좁은 공간에 맞게 늘어나는 살림만큼 꼭 그만큼은 줄여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필수적인 살림만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혼자 사는 감옥 독방살이도 이러한데, 자녀들과 생활을 하는 현대인의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요새 어떤 집은 옷방 따로, 책방 따로, 심지어 운동기구를 설비한 방까지 따로이니 웬만한 평수로는 불감당입니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갈수록 너무 넓게만 살려 합니다. 더 넓은 평수의 거실과 방, 가구, 대형냉장고, 배기량 커지는 자동차까지 주거 공간은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그 누가 불필요한 물건을 돈 들여 일부러 구입하겠는가만, 꼼꼼히 따져보면 '최소한의 필수적 살림'인가에 대해선 확신이 없습니다. 땅과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활문화가 복잡하고 비대해진 게 문제입니다. 온통 세상이 소비를 미덕이라 하고 곳곳에서 지갑 열기를 유혹합니다. 길거리 공짜폰 사탕 발림도 공짜일 리 없고, 홈쇼핑과 백화점의 세일과 경품잔치도 장삿속 호객행위일 뿐인데 말입니다. 그만큼 지출을 메우기 위해선 또다시 아이들과 대화도 못한 채 맛벌이로 밤낮 없이 돈 벌어야 합니다. 이른바 '문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민동락공동체는 특히 이사철만 되면 분주합니다. 새 집 들어간다고 멀쩡한 가구며 전자제품을 버리기 일쑤여서 재활용품 수거해서 필요한 곳에 나누는 까닭입니다.

단순한 것이 최고입니다. 잘 먹는 것 이상으

로 잘 싸는 게 건강엔 중요한 법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빈틈없이 쌓아 둔 평생 한 번 쓸까말까 한 물건들을 대청소합시다. 일 년에 한 번은 목욕재계 하듯 온 집안을 정갈하고 단순하게 정리합시다. 미련없이 책은 도서관이나 공부방에, 유아용 놀이기구는 갓난아이 태어난 이웃집에, 안 입는 옷은 재활용 장터에 나누면 됩니다. 넓은 집으로의 이사를 꿈꿀 게 아니라 사는 집을 필요에 맞고 품격있게 가꾸고, 현관 문 열고 집 안에 들이는 물건은 언제나 심사숙고 판단할 일입니다. 배고픈 시대의 노동자는 임금으로 착취 당하고 배부른 시대에는 문화로 착취 당합니다. 공동 공간은 넓게, 개인 공간은 작게 사는 법을 배워야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덜 쓰고 더 불편하게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인가, 설날에 먹고 남은 떡국떡이 아직도 냉동실에 있더라고 한마디 했더니, 아내 스스로 냉장고 문에 이런 표어를 붙여 놔했습니다.

‘냉장고를 가난하게’, ‘냉장고를 믿지 말자’

3. 가난하게, 더 가난하게

‘좋은 세상을 위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오히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삶은 물질적 풍요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민동락공동체는 ‘작게 그리고 가난하게’를 목표로 삼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풍요가 싹틀 때를 가장 경계합니다. ‘번영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가난한 공동체에 희망이 있다’는 뜻을 늘 새기고 삽니다. 공동체가 번영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물질과 성장만을 최고로 여기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세계 102위입니다. 세계 수출 7대 강국에 11위 무역대국의 현실입니다. 불행한 얘기지만, 자살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입니다. 연간 1만 5천여명이 자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삶을 위한 근본적 성찰입니다. 부자를 꿈꾸는 삶의 목표를 바꿔야 절망의 시절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개발과 성장 그리고 부자 신화만을 가르치는 이들의 포로로 살기엔, 우리네 삶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아파트 평수 늘리고 자동차 배기량 크게 하는 게 삶의 이념이 돼 버린 상황에선, 언제나 우리는 돈의 노예입니다. 경제지상주의 세상이지만, 그 경제는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위기의 주범이지 않습니다. 위기 때마다 간판 내리고 일자리 잃는 건 바로 우리, 경제의 미몽 안에서 순박한 꿈을 꾸고 사는 평범한 백성일 뿐입니다. 그 때마다 절망하고 그 때마다 부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는가만,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될 수도 없을 테고 돈만을 위해서 생을 바칠 순 없는 노릇입니다.

‘경제라는 이름의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에 대한 신봉을 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차라리 자발적 가난을 선택할 일입니다. 소유의 맹목에서 벗어나면 삶의 품격이 달라지고 새로운 충만과 풍요가 찾아옵니다. 좋은 차 샀다고 한두 달 좋아하지만, 기름값 눈금에 민감하게 되는 게 현실이고, 평수 넓은 집 샀다고 흐뭇해 하지만 난방비 아낀다고 방 몇 개는 아예 불도 안 땁니다. 인구와 국토 대비 평균 6평 정도가 한 사람이 가질 적정 크기랍니

다. 그 이상은 다 남의 것일 겁니다. 소유의 경제를 좇다보면 인생사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치의 삶으로 승부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데만 부족함이 없다면 그리 탐욕에 갇혀 다투고 살 일 아닙니다. 좋은 차 타고, 넓은 집 갖는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고대광실에 살아도 방 한 칸에서 잠을 자고, 진수성찬 아무리 풍족해도 하루 세 끼니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결단과 각성이 필요합니다. TV를 봐도 신문을 봐도 온통 돈 타령이지만, 앞으로는 가난하게, 더 가난하게 삶을 바꾸는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지구촌 인구 14억명이 가난에 허덕이고 매년 1천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죽는다는 기사를 보고 내 사는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식의주 문제없이 사는 소유만으로도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할 일입니다.

4. 좋은 삶, 좋은 세상 ‘밝은 지혜, 맑은 마음’

길 가던 내 눈길을 멈추게 한 어느 초등학교 교문에 걸린 교훈입니다. 그저 평범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풀무농업학교 설립자이신 이찬갑 선생의 아주 특별한 호(號)를 연상케 해서 각별했습니다. 일찍이 1950년대부터 농(農)의 가치를 설파한 선각자 이찬갑 선생은 ‘매일 새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뒷동산에 올라가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바라보며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연 뒤 아침이면 늘 “밝았습니다”, 낮엔 “맑았습니다”, 저녁엔 “고요합니다”라고 인사했고, 그 인사법은 이 학교의 인사법이 되었

다' 합니다. '밝다'와 '맑다'를 딴 '밝맑'이 바로 그의 호였습니다. '밝맑' 선생처럼 밝고 맑게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분투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늘 '진보'답게 밝고 맑게 자신의 살림살이를 가꿔가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좋은 세상을 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개조해야 하고,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엄격하게 검열해야 하는 법인데, 부끄럽게도 현실은 성찰에는 게으르고 학습과 혁신에는 핑계가 많 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보의 출발은 바로 자기 살림살이부터라야 합니다. 모든 꽃과 새가 새벽에 깨듯이, 이른 새벽 일어나 하루 살림을 준비해야 몸과 맘이 정돈되고 자연스럽습니다. 먹고 입음을 간소하게 하고 철따라 단식으로 몸을 비우고 정신을 정화하는 수련 또한 필수입니다. 지성은 학문에서 닦고 이성은 철학으로 닦지만 감성과 영성은 단식의 비움으로 닦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하루 한 번은 꼭 땀 흘려 노동하고, 친구를 만나 듯 끊이지 않고 매일 매일 기쁘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집안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성평등의 기초를 쌓는 훈련을 해야 옳 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불의한 일에는 다툼을 피하지 말되, 부부와 자녀 할 것 없이 평등한 지위로 토론하고 회의하며 존중하는 말법과 배려하는 품격으로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게 사회 변화의 바탕이 돼야 합니다.

본디 참된 삶의 징표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책을 가졌냐는 부차적입니다. 자신의 몸과 맘을 살피는 자세와 집안의 민주주의 그리고 제 살림살이를 가꿔가는

모습에서 한 사람의 철학과 신념의 정직성을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살림살이 얘기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아무리 어려워도 별이의 1%는 눈 딱 감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바쳐야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지역 단체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빈 공간을 채워주는 십시일반의 정성은 이미 각성된 시민의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 1%가 전체 국토의 50%를 소유하고, 상위 5%가 80% 이상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 기형적인 대한민국을 바꿔내기 어려운 탓입니다.

내세울 얘기는 못되지만, 제가 활동하고 있는 영광군의 여민동락공동체는 후원금품의 10% 이상은 국제구호단체, 시민단체를 비롯해 타 단체와 시설에 눈 딱 감고 나누는 내부 규약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공간을 비우면 비우는 만큼의 서너 배를 채워주는 게 나눔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 덕분에 가난한 살림살이지만, 지금껏 쌀독 동날 때 없었고, 돈 때문에 다 튀본 적은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천천히 더 많은 살림살이의 진보를 위해 노력할 참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은 큰 노력입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소결음으로 스스로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좋은 습관과 문화를 익히다보면, 어느새 닫혔던 이웃집 대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나물 담은 접시가 넘나들며 지역 사회 표정이 밝고 맑은 '밝맑' 세상이 꽃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5. 마을에서 이쁘게 살아요 우리!

“위대한 평민, 골목 복지를 구현하는 진정한 복지 리더”

오래된 얘기입니다. 생각나서 다시 정리해

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 이사 온 아이가 엘리베이터 벽에 메모 하나를 남깁니다.

“12층에 이사왔어요. 힘 쎄고 멋진 아빠랑 예쁜 엄마와 착하고 깜찍한 준희, 귀여운 여동생 지민, 저희는 12월 16일 날 이사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바드세요.”-1203호 사는 준희 올림 (오타 수정하지 않았습니 다. 아이의 메모 그대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605호에서 반응을 합니다.

“준희야 이사 와서 반가워. 앞으로 보면 인사하고 지내자. 항상 웃는 얼굴로” -605호

다시 또 406호 아줌마가 포스트 잇을 붙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께서 우리 통로에 큰 선물을 주셨구나 ㅎㅎ 모두가 행복해하니 떡 잘 먹고 반갑다” -406호 아줌마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온 동네가 엘리베이터 안에 붙임쪽지를 붙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급기야 엘리베이터 안은 붙임쪽지로 메모가 꽉 차고 마침내 인사와 소통의 공동체 알림터로 꾸며졌습니다. 어린 아이의 메모 하나가 이렇게 큰 울림을 준 덕분입니다. 아파트에서 인사가 시작됐다는 말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을 리더의 활동은 이런 소박한 실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녁 때마다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던 엄마가 또래 아이들이 함께 놀게 하기 위해 똑같은 시간을 정해 출근하듯 놀이터를 지켜주니, 아이들이 그를 ‘놀이터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요새 시절이 수상해서 안전 문제 때문에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 나가서 노는 걸 불

안해하던 부모들이 차차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놀이터 이모’ 덕분입니다. 놀이터 이모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신상은 물론 부모님 얼굴까지 모두 파악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늘 안심입니다. 그러다 이게 확대돼 여러 엄마들이 ‘놀이터 이모’를 자청합니다.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동네가 달라졌습니다. 낮 시간에도 확대할 계획을 합니다. 아이들 놀이터를 거점으로 온 동네 아파트가 말을 걸고 인사를 하고 공동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는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돈 들지 않는 실천입니다. 많은 시간을 쏟아 헌신해야만 하는 희생도 아닙니다. 그저 훈훈한 동네를 만드는 이웃으로서의 배려, 그 중심에 서는 일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이쁘게 살면서 서울 강남구 서초동처럼 부유하게는 못 살아도,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행복하게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6. 여민동락공동체, 꿈을 펴다.

그래서 변방으로 갔습니다. 복판보다는 가장자리에서, 중심보다는 변방으로 가야 더 값진 삶을 이룰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국가에서 마을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통치에서 자치로, 관치에서 협치로의 전환은 거역할 수 없는 문명의 방향입니다. 독점에서 나눔으로, 소유에서 공유로의 가치 이동 또한 긍정적인 대세입니다. 여민동락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농촌의 재생과 부흥을 위한 농촌 공동체 ‘여민동락 공동체’(전남 영광군 묘량면 소재)가 출발한 지 꼬박 10년입니다. 어찌면 무모했는지

도 모릅니다. 낫선 일 낫선 도전 앞에 생을 걸고 뛰어든 저희 여민동락공동체 설립자 세 부부의 농촌행을 두고, 믿음보다는 우려가 대세였습니다. 8년여 시간, 참 공부 많이 해야 했습니다. 제아무리 꼼꼼한 설계와 준비를 했다 해도, 새로운 삶을 일구는 일은 여러 벼들의 우려대로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랏돈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립의 원칙을 지켜

세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는 일만으로도 태산을 옮기는 일만큼 버거웠음을 고백합니다. 도시 문명에 갇혀 있던 껍질을 깨고 새살을 돋우는 일은 갈등과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농촌살이의 고유한 문화와 규칙을 각성하는 과정도 차라리 혼란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랏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지갑부터 열어 먼저 나누자는 원칙, 스스로 농민이 되어 밭 한 평이라도 노동하고 경작하자는 소신, 복지 안에 갇힌 복지가 아니라 지역민의 일원이 되어 지역 일체형 생활 공동체를 만들자는 철학을 이뤄가는 일 모두, 솔직히 말하자면 고행이자 수행이었습니다.

국가보조금보다 주민의 신뢰가 더 위대한 힘

그때마다 공동체를 가르치고 키워준 은인은 지역주민이었습니다. 쌀 한가마, 마늘 한 접, 콩 한 되, 고구마, 호박, 감자, 오이, 채소.... 끝이 없이 이어졌습니다. 빵가게, 굴비집, 식품가게, 떡집, 밥집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 걱정보다도 주민들의 참여와 나눔의 신비에 행복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역의 신비는 광주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고향을 아껴줘서 고맙다며 적지 않은 돈을 보내온 출향민부터, 인터넷 카페를 보고 중고물품을 택배로 보낸 주부, 수십 년 공

직생활 중 포상을 받아 익명으로 상금을 기부한 공무원까지.....실로 예상치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민동락 공간을 채워주시는 전국 회원들의 감동적인 나눔의 행렬 앞에 그때마다 매순간 숙연해져야 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반드시 몇 배 더 사랑하고 나누는 헌신적 실천이야말로, 받은 사랑 배신하지 않는 일이라 다짐하곤 했습니다. 저마다 “보조금 없이 어찌 운영하느냐”고 의아해 하기도 했습니다. “나랏돈 누가 써도 쓰는 건데, 왜 그렇게 순진하냐”고 타박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일리 있는 조언이지만, 아마 처음부터 보조금으로 시작한 여민동락이었다면, 이런 신비는 꿈조차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고 보조금이나 기업후원은 원칙적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기업의 사명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고 보조금이나 기업후원은 근본적으로 ‘지원’일 뿐이지 창조적 ‘생산’은 아닙니다. 자립은 외부 지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부 경작과 생산, 개미후원과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가능할 때 진정한 자립이며, 그러한 경제적 자립이 실천의 독립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민동락은 첫마음 그대로, 소박하고 우직하게 마을공동체를 일궈갈 것입니다. 여민동락을 제 한 몸매 가두지 않고 지역에 전면적으로 바치며 농촌을 살리는 맨 끝자리에서 분투하겠습니다.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삼농(三農) 정신을 지키는 농촌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협동을 통해 내 자신이 아름다워지고 살맛나는 지역이 되고 나아가 세상이 바뀔 수 있는 마을 공동체의 본령에

충실하겠습니다. 그 성숙과 완성, 오롯이 동행하는 벗들의 힘으로만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존재 깊숙한 사랑과 믿음을 온몸으로 확인 받으며 사는 여민동락은, 멋진 세상을 만드는 먼 길 내내 행복할 것입니다.

여민동락공동체의 헌법

여민동락공동체는 처음부터 협동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설립됐고, 지금도 그 헌법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동과 생산을 통하지 않은 모든 외부의 기부와 후원은 반드시 그 십분의 일을 쪼개, 더 가난하고 후미진 지역과 단체와 시설에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둘째, 국가의 보조금과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다. 다만, 국가의 보조금과 인건비는 재정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완벽하게 이룬 뒤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감당 가능한 자금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셋째, 아이들을 도시로 유학 보내지 않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본은 지역에 '사는' 것이고,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작은 시골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교육과 문화를 살려가야 온전히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넷째, 농촌 주민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밥을 먹으며 농부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을 활동가 혹은 지역운동가라 자칭하면서 주민들 속에서 '헌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으로 함께 살며 주민들의 살림 모양을 닮아가고 농민들에게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하면서 온전히 마을구성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뢰와 학습이 공동체의 관건

이처럼 여민동락은 농촌의 경제 복지 교육 문화의 융복합적 접근과 협동의 원칙에 의거

해 마을공동체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애당초 여민동락 설립 또한 세 부부가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관계가 풍부한 사람은 관계를,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정능력을 출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세 부부 여섯 명의 최초 출자가 이제는 20여명의 대식구로 확장되었습니다. 여민동락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구성원간의 절대적인 '신뢰'이자 끊임없는 '학습'입니다. 오래된 관계의 축적을 통한 신뢰의 확인 없이 공동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신뢰의 확장은 끊임없는 학습에 기반하지 않고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여민동락공동체는 월요학당을 통해 학습하고 성찰하는 걸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늘 갈등과 반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살림살이입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조절 통제하고 신뢰로 승화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학습과 성찰의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고 소박하게 만들고 운영하는 협동조합

여민동락공동체는 지금 동락점빵, 할매손송편, 행복일자리 영농협동조합을 운영합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나 학교살리기 같은 복지나 교육활동 이외에 다양한 협동조합 유형의 사회적경제를 실천해 갑니다. 협동조합은 한마디로 동업입니다. 동업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규모가 크고 사람이 늘어갈수록 그 실패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집니다. 그래서입니다. 여민동락이 만드는 협동조합은 지극히 가난한 협동조합입니다. 작고 소박하게, 마을에서 사는 주민들이 그 마을에 거점을 두고 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사람중심 마을중심이라고 해야겠습니다. 큰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위험 없이 큰 행복을 추구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행여 수익이 생기면 마을기금 혹은 지역사회 공유자금으로 축적합니다. 뜻이 좋아야 그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분열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성과보다 오래도록 길게 공리하고 신뢰를 축적하는 관계망을 우선시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사회적경제 혹은 협동조합이 ‘좋은 사람들과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기업이 됩니다. ‘사업’이 아니라 ‘살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좋은 뜻만 있고 ‘경영 능력’이 없으면 안됩니다. 영리기업 이상의 수고와 노동이 필요하고, 부단히 제도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부지런함을 보여야 합니다. 워크숍이든 강연회든 아니면 관련 저서와 자료, 논문들을 접하고, 선진지 견학과 선구자들과 자주 어울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공부와 경험과 신뢰와 마을 속에서의 관계가 깊어지고 쌓이고 하다보면,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 또 다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협동의 힘이고 공동체의 긍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7. 여민동락! ‘더불어 樂’으로 확장

복지, 담장을 넘어 마을로

더불어樂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저는 두 집 살림을 해왔습니다. 지난 5년 간 영광과 광주를 오가며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광산구 노인복지관 더불어樂의 운영 철학은 여민동락공동체와 동일합니다. 복지관의 미션은 바로 ‘사람중심 마을거점 공동체복지’입니다. ‘마을에서 어르신 한 분을 잃는 것은 큰 도

서관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는 표어를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단순히 복지재정의 소비자 혹은 수혜자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공동체의 당당한 주체로 ‘예우’할 것인지의 여부, 그것을 복지관의 철학과 관점을 바로 세우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르신들이 지닌 경륜과 자산, 재능과 지혜를 지역사회를 위해 두루 쓰일 수 있도록 거들고 돕는 일,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와 기관, 마을 모임들이 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일을 복지의 근본에 둡니다.

복지, 소유에서 공유로

나아가 복지관 담장을 허물고, 복지관이 지역거점 다기능 복지의 역할을 해갈 수 있도록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깁니다. 낮에는 노인복지, 밤에는 주민들이 이뤄가는 마을복지, 주말에는 청소년들이 주인이 되는 청소년학교를 통해, 그야말로 온 마을이 복지관을 거점으로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이 만나는 공동체 복지의 광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땅 사고 건물 짓는 토건복지 대신 기존 건물의 이용공간을 확장하여, 그 비용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중심 복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지요. 이른바 ‘밤에도 열린 복지관’, ‘주말에도 열린 복지관’은 특정 대상의 소유에서 마을 전체의 공유로 복지관을 개방한 사례입니다. 담장을 낮추고 운영인력만 갖춰지면 복지관 하나가 온 마을 주민들이 사립문 열고 접시 돌리며 마을 공동체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르신들의 자주적 결사

그래서입니다. 복지관 1층 휴게실을 개조해서 마을도서관과 마을찻집을 만들고, 이를 지역에 나눴습니다. 국가의 보조금과 인건비 지원 없이, 어르신들 스스로 십시일반 나눔과 협동의 힘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379명의 어르신들이 기금출연으로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결사를 하셨지요. 시공설계와 감독 또한 건축 일을 하셨던 어르신 한 분의 재능기부로 이뤄질 만큼 예상롭지 않은 모색이었습니다. 밤과 주말에도 문을 열고 지역주민 누구라도 이용하는 마을도서관과 마을찻집, 이렇게 문을 연 마을도서관에서는 어르신 글짓기 교실, 작가 초청 강좌, 어르신들과 초중고 학부모 독서회와의 만남, 공정무역 토크쇼, 어르신과 지역주민 작품 전시회, 작은 음악회, 휴먼 다큐멘터리 상영회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조합 혹은 기업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협동조합의 원칙과 정신으로 어르신들이 만들어 낸 쾌거입니다.

광주전남 협동조합 1호

어르신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국가가 마련해 주는 노인일자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르신들 스스로 자립형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공헌활동도 해보라며 ‘더불어 樂’이라는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당연히 적잖은 출자금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두부공장도 짓고 팔죽가게도 열었습니다. 이미 협동조합의 순례지가 되고 있고 광주전남 협동조합 1호로 지역협동조합의 선구자로 정착했습니다. 머지않아 낮 시간에만 운영하는 경로식당을 밤에 개방하여 협동조합으로 도농 직거래 밥집을 운영할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건물을 특정 대상의 ‘소유’에서 마을의 ‘공유’로 바뀌가는 관점의 변화

가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내고 있고 사람중심 마을거점 공동체복지의 공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8. 맺음말

많은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삶에 대해, 그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 수다를 길게 떨었습니다. 처지에 따라서, 자칫하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선망하던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언제나 명과 암이 교차합니다. 공동체 안의 복잡하고 당황스러운 내막의 실상을 다 보여드릴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살고는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고 사는 비법들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바, 늘 결단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어제 상상하고 오늘 기획하고 내일 집행하라 했습니다. 주저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불편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삶, 좋은 공동체,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조금 쉽지 않게, 멀리 보며 오래 가야 합니다.

본디 좋은 삶은 단순합니다. 생각은 깊게, 생활은 단순하게. 몇 번을 곱씹어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좋은 삶은 작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집안에서부터 마을로, 마을에서 지역사회와 국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 좋은 삶을 이루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법이겠지요.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은 이미 참 좋은 세상입니다.

도학(道學)의 원류(源流)와 하서선생의 도학 시

김충호(훈몽재 산장)

양재 권순명(權純命)선생이 필암서원 산양계 서문을 쓰셨는데, 양재선생 문하에서 10년을 공부했습니다.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륜을 실천하는 도학은 요순우탕 문무주공으로부터 시작하여 공맹을 거쳐 주자로 이어졌고, 정암 조광조에서 하서로 이어졌습니다. 주염계가 태극도설을 지었는데, 태극이 곧 천명입니다. 하서가 천명도를 지었습니다. 불우한 시대에 도학을 공부한 진유(眞儒)들은 본성과 본심을 다 찾도록 해주는 왕도정치를 펴려고 했습니다.

대혼란의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는 사구, 대사가 되어 자로를 등용하여 개혁정치를 했습니다. 권력실세인 삼가(三軀)를 무장해제하고 성을 낮추도록 했으나, 맹손씨가 굴복하지 않아서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간 식량이 떨어져 굶주렸고 진 채나라 군대에 포위되기도 했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제자들에게 도를 전했기에 유학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맹자시대에는 전국시대라서 더 어지러웠다. 소진, 장의 등 온갖 백가들이 나왔지만 맹자만이 홀로 공자의 도학을 전했다. 그 후에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일으켜 유학자들을 생매장하

고 유교경전을 불태웠다. 오직 주역만 남겨놓았다.

한무제 때 동중서란 유학자가 유교를 국교로 삼도록 함으로써 유학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명제 때 불교를 받아들인 후 1500년 동안 불교가 휩쓸었다. 노자의 도교도 성행하여 유교를 공부하는 곳은 없어졌다.

1500년 뒤에 주염계선생이 태어나서 유학 중흥의 개산조 역할을 했다. 아버지가 상처하고 과부하고 결혼해서 주염계선생이 태어나 서자였지만 벼슬을 할 수 있었다. 정명도 아버지가 정태중공 밑 부속관리로 취임하여 염계선생을 보니 선품도골이요 행정도 잘 하고 학문도 뛰어났다. 그래서 정명도 정이천 두 아들을 염재에게 보내서 공부하게 했다. 큰 선생을 만나 큰 학문의 세계를 이어받았다. 태극도설을 배웠다. 정명도 정이천 문하에서 여러 제자가 나오고 주자(朱子)가 나와서 성현들의 경전을 모두 주석해 놓았다. 그래서 유학이 오늘까지 살아남게 되었다. 주염계선생은 중국 유학의 강줄기를 이정(二程)에게 다 가르쳐주었다. 주자(朱子)가 공자의 강줄기를 다 찾아내어 가르쳤다.

조정암이 도학으로 개혁정치를 하려했으나 좌절했다. 기묘사화로 조정암이 능주에서 사

약을 받을 때 하서는 10살이어서 이를 듣고 자랐다. 하서와 퇴계선생이 성균관에서 만나 과거공부를 제쳐놓고 도학을 열심히 공부했다.

하서는 세자시강원설서로서 인종의 사부가 되었다. 인종은 선풍도골에 인품이 훌륭한 하서에 감동하여 숙직실에 찾아오시고 묵죽도를 그려주었다. 조야에서는 인종이 즉위하면 하서와 함께 왕도정치를 펴리라 크게 기대했었다. 그러나 꿈도 잠시 인종이 갑자기 돌아가신다. 하서는 통곡하다가 기절했다. 그 후로 서울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 명종이 수차례 벼슬을 내렸으나 사양했다.

옥과현감밖에 지내지 않은 분이 어떻게 문묘에 배향되었는가? 공자의 도학을 올곧게 지켜온 분이기 때문이다.

하서는 소학(小學)을 매우 중시했다. 아들 형제에게 10년 간 소학을 가르치고 대학을 공부하게 했다. 어떻게 하면 도학이 살아날 것인가? 도학을 실천하는 것이다. 도학은 태교로부터 시작된다. 신사임당은 태교에 철저했다. 율곡을 비롯해 아들들이 다 명인들이다. 태교를 하면 용모가 단정하고 뛰어난 인재가 태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소학의 가르침은 본성과 본심을 되찾는 것이다. 하서는 복성부(復性賦)를 지어서 이를 시로 가르쳤다.

상제(上帝)가 인간을 내려 보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어서 보낸다.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맹자(孟子)는 성선설을 주장했다. 공자의 본성이나 우리의 본성이나 똑같다. 원형이정(元亨利貞), 인의예지(仁義禮智).

하서선생이 천명도(天命圖)를 지으실 때 공자의 계사, 주염계의 태극도설, 장재의 서명

을 참고했다. 순창 훈몽재로 추만 정지운이 찾아와 문의하므로 발문을 써주고 자신의 천명도를 지었다. 4년 후 퇴계선생이 천명도를 지었다. 훈몽재는 하서에게 주자의 무이구곡과 같이 매우 중요한 곳이다. 하서가 돌아가신지 109년 만에 문정(文靖)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정조 때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되었다. 정조는 동방의 주염계요 호남의 수사라고 하서를 칭송했다.

고봉 기대승선생은 학문이 높으신 분이다. 퇴계선생과 7년 동안 4.7논쟁으로 유명한데, 퇴계선생이 고봉 때문에 엄청 공부하셨다 한다. 이때에 고봉이 하서에게 질정하여 퇴계와 맞장뚝했다는 설이 있다. 퇴고 서신에서 고봉은 <후학 고봉 기대승>이라고 쓰고 문인(門人), 소자(小子)라고 쓰지 않았다. 퇴계선생에게 보낸 서신에 고봉이라는 호를 썼다.

고봉의 성리학설은 율곡의 학설과 비슷한 점이 많다. 율곡의 4.7설은 하서가 먼저 깨달았다고 정조는 말했다.

하서선생이 돌아가시고 고봉이 46세로 돌아가셔서 호남 유학으로서는 너무 안타깝다. 하서가 돌아가셨을 때 고봉이 쓴 제문에 하서선생이라는 극존칭을 썼다. 퇴계선생에게는 두 번 사람을 보내 조문했으나(먼 거리, 건강 때 문일 수도 있다.) 하서선생에게는 직접 조문했다. 퇴계선생에 대한 제문보다 하서에 대한 제문이 더욱 절절하다. 마음으로 복을 입는 것을 심상(心喪)이라 한다. 광주에서 퇴계의 부음을 받고 통곡하고 가마는 하지 않았다. 그 이듬해 4월 하순에(음 3월 21일 규봉암에 갔다가 연 나흘 비가 와 하산 못함) 고봉은 소쇄원에 들려서 환벽당에서 서하당 김성원, 제봉 고경명과

재미있게 술을 마시며, 3월 21일은 퇴계 기일이라고 적어놓았다. 고봉이 퇴계의 제자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퇴계의 제자라는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미호 김원행은 영남의 퇴계 존숭과 달리 호남은 하서에 대한 의론이 통일되지 않는다고 심히 걱정했다.

저는 하서선생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 유학의 맥이 단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당(古堂)은 반딧불 역할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훈몽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자연당을 왔다갔다 해서 〈반딧불설〉을 지어놓았습니다. 유학이 숨넘어가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자 김재수 요약 정리)

忠恕；孔子

공자는 자아가 개인의 방식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아는 집단의 일원이기도 한 것이다. 전체의 한 구성원인 자아는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공자가 내놓은 인도仁道 원칙을 보면, 개인은 자아를 실현하고 공시의 타인의 자아실현의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 이 원칙은 ‘충서忠恕’라는 주장에서 주체적으로 나타난다. 충忠이라는 것은 “자기가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남부터 뜻을 이루게 하는(己欲立而立人)” 것이다. 서恕라는 것은 “자기가 바라지 않은 일은 남에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己所不欲, 勿施於人)”라는 것이다. 자아는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다. 남을 돕는 행위도 자아실현을 전제

로 하는 것이다. 주체 역시 자아의 완성에 머물지 말고 ‘추기급인推己及人’해야만 한다. 곧 자아의 도덕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남들이 도덕적으로 바로 서도록 힘써야 한다.

與民同樂；孟子

제 선왕이 맹자를 설궁에서 만났다. 왕이 “어진 사람도 역시 이러한 즐거움을 갖습니까?”하고 말하자, 맹자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가집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웃사람을 비난합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고 웃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웃사람이 되어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같이 하지 않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웃사람이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백성들 역시 웃사람의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웃사람이 백성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면 백성들 역시 웃사람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합니다. 천하의 일을 가지고 즐기고, 천하의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그러고서도 천하에 왕노릇하지 못한 사람은 여지껏 있어 본 일이 없습니다.

齊宣王 見孟子於雪宮 王曰 賢者 亦有此樂乎 孟子對曰 有

人不得則非其上矣 不得而非其上者 非也 爲民上而不與民同樂者 亦非也

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 憂民之憂者 民亦憂其憂

樂以天下 憂以天下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필암서원 소장 古文獻 圖錄 發行

하서학술재단(1402책수)과 양영재단(2342책수)이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에 기증한 고문헌(3744책수)를 圖錄으로 편찬 발행하였다

지금까지 수장고에 포장 보관된 고문헌의 目錄과 서지(書誌)를 상세하게 해제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고서를 연구하는 후학들이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필암서원 유물관 소장 “고문서 도록”은 필암서원 학술회가 전남대학교 도서관과 2013년 4월 업무협약을 맺어 3개년의 작업을 거쳐 발행하였다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는 특정 정파나 특정 인물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각층의 고서를 수집하고 도록을 작성하였다

고문서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필암서원에 오셔서 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역사교육 만화

佳人김병로 책자 기증

독립운동가이자 인권변호사이며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의 만화 일대기 “역사교육 만화-근대사의 인물 街人 김병로” 책자 발행을 주관한 (사)국민경제 과학만화 운동본부 이사장 한만청 의학박사가 본 필암서원에 “가인 김병로” 책자 2,000권을 기증하였다

이 책을 기증하면서 필암서원을 방문하는 학생의 역사교육 자료로 사용해줄 것을 당부

하면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정의를 위하여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의리에 도학을 겸한 호남의 자부심 필암서원

한국학 중앙연구원(이기동 대표)에서는 서원의 주체였던 선비들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서원 및 선비와 관련된 역사적 교훈과 진정성이 담긴 문화적 소스를 개발하여 한국 인문정신 문화의 정수를 담은 양질의 한국 교양서를 집필 발간한다

유교문화의 중심지 서원을 문화사적으로 접근하여 한국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명함으로써 우리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대중적 갈등을 해소시킨다.

금번 집필 대상 서원은 제1차적으로 조선 시대에 존재했던 서원 가운데 사회문화적 역할과 가치, 제향 인물의 역사적 비중, 관련 기록 및 유적의 풍부성을 고려, 우선 6개 서원을 집필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호남권에서는 “필암서원”이 집필 대상에 선정되었다

집필대상 6개 서원은 필암서원, 석실서원, 도산서원, 덕천서원, 옥천서원, 돈암서원이다
필암서원 집필 요목은 다음과 같다

제목 _ 의리에 도학을 겸한 호남의 자부심 ..필암서원

• 서원 개요

소재 _ 전남 장성

연혁(건립/사액) _ 1590/1662

인물(주향/배향) _ 김인후/양자정

주안점 _ 호남을 의리도학지향으로 이끈 남도의 수원

• 주제 구성

1장 _ 필암서원의 연혁과 김인후 - 호남의 공자가
되다

2장 _ 김인후의 문학과 사림 - 산절로 수절로 산수
간에 절로 절로

3장 _ 묵죽도와 편액에 담긴 사연 - 하서 선생의 맑은
절개, 천고를 울리네

4장 _ 필암서원의 공간과 건축 - 황룡의 길지. 혈식
군자(血食君子)를 품다

5장 _ 김인후의 도학과 절의 - 맑은 물 위의 연꽃.
엄동설한의 송백

으로 내려와 후학 양성에 힘썼다, 정조 때 호
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돼 호남의 유종
으로 추앙 받고 있다

필암서원은 호남 유림이 하서 선생과 제자인
고암 양자징 선생(1523-1594)을 추모하기 위해
조선 선조 때 창건한 사우로 대원군의 서원 철
폐 때도 피해를 보지 않은 유서 깊은 곳이다

추향제가 끝난 뒤 “제14회 하서선생 추모 유
적지 탐방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전예
나 양(12 장성중앙초 5년)이 “우리들에게 김인
후 선생님이란?” 자신의 글을 영전 앞에서 봉
독했다.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 추향제

조선 중기 성리학자인 하서 김인후 선생
(1510-1560)을 기리는 ‘추향제(秋享祭)’가 9월
12일 장성군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
에는 정환담 필암서원 산양회(山仰會) 이사장,
고재유 전 광주광역시장, 김중채 서재필 기념
사업회이사장, 김재경 전남 보성향교 전교, 김
철수 전북 고산향교 전교, 김달수 울산김씨 대
종회장, 유두석 장성군수와 주민, 유림 등 200
여 명이 참석하였다

향제는 봉진례, 전패례, 초헌례, 아헌례, 종
헌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하서 선생은 조선 중기 유학자로 1540년 별
시문과에 급제한 뒤 1543년 홍문관 박사 겸 세
자시강원 설서가 돼 세자(인종)를 가르쳤다. 인
종이 죽고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고향인 장성

河西全集 기증

“김형소(金炯昭)” (각제공파) 종친은 선친(전
도유사 金相一)이 소장하고 있던 河西全集(1집
4책으로 편집) 100질을 필암서원에 기증했다

기증한 하서전집은 필암서원(서기1993년 5
월 전남대학교 출판부 인쇄)에서 발간한 문집
으로 서원에 보관된 하서문집이 없어 하서 사
상과 학문을 연구하는 후학에게 되움을 주지
못하던 중 “형소” 종친이 필암서원에 기증함으
로써 하서 문학과 사상 연구를 하는 교수, 유
림, 학생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필암서원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선봉장

1. 추진목적

- 청소년들에게 과거 문화 유산의 우수성을 인식시키
고, 현대생활에 접목함으로써 문화계승이라는 발전
적 측면 부각

- 동·서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서원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여. 향토 문화탐방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 공유

2. 추진 실적

• 제1차

일시 _ 2016. 5. 26일(목) ~ 5. 27일(금) (1박2일)

장소 _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

참여인원 _ 장성황룡중학교 2년 23명 / 영주 소수중학교 28명

참가서원 _ 장성 필암서원 경북 영주 소수서원

주요내용 _ 서원문화체험, 교류기념회, 만찬, 대통합 캠페인 등

• 제2차

일시 _ 2016. 9. 29일 ~ 9. 30일(1박2일)

장소 _ 경북 영주 소수서원

참여인원 _ 제1차와 같음

참가서원 _ 제1차와 같음

주요내용 _ 소수서원 문화체험, 유물전시관 견학, 부석사 관광, 필암서원 선물 세트 전달, 기념촬영

• 제3차

일시 _ 2016. 11. 29일

장소 _ S타워빌딩 지하1층 다이아몬드홀

참여인원 _ 70여명(서원임원, 지자체 직원, 유림 등)

행사내용 _ 교류 협력사업 워크숍, 감사패 수여

한국의 서원 이코모스 자문실사

가. 일시 2016년 11월 8일(화) ~ 11월 16일(수) 9일간

나. 참석자

- 리차드 맥케이 교수(호주, 세계유산 보존관리 전문가)

- 리화동 교수(중국 한국 비교유산 전문가)

- 서원관리단.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 지자체 담당자. 서원유림 등

다. 자문 실시 내용

- 탁월한 보편적 가치(등재조건, 완전성 및 진정성)

- 연속유산 선정

- 비교유산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설정과 보호관리

라. 향후 계획

- 12월 1일(목) _ 제4차 집필진 회의

- 12월 16일(금) _ 제2차 이코모스 화상 회의

마. 자문실사 주요 내용

- 보존관리 현황

- 서원관리단 역할 및 운영

- 등재조건

- 연속유산 선정

- 비교유산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설정 및 보호관

筆巖書院 祐東祠. 淸節堂 補修

2014년 필암서원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및 2015년 12월 “필암서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의 최종보고서(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 이사장 송순예 보고서)에 따라 2016년도 정비계획분 “우동사 지붕기와 전면 교체. 청절당 대보, 중보, 상부기구(처마) 45개, 지붕기와 등 교체. 고직사 변소 내부수리 및 지붕 전면 번와 작업과 기타 보수를 4억원의 예산을 투입 보수를 완료하였다

2017년도 정기총회 준비 본회 이사회

여민락공동체 대표 강위원씨 초청

2017년도 정기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본회 이사회가 11월 11일 16시에 <사직명가>에서 열렸다. 정환담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충원 총무가 경과보고를 하였다. 이어서 김재수 이사의 사회로 안건을 논의하였다.

2017년도 정기총회를 12월 23일(금)에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영광 묘량면에서 <여민락공동체>를 운영하면서 투게더광산나눔센터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위원씨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기로 했다.

이어서 본회 산양회보 제28호 편집회의를 열어, 하서 시문, 강위원씨 강연원고, 김봉곤 교수 논문, 김세곤 원장 글, 김충호 훈몽재 산장 강연 원고를 싣고, 회원 주소록을 게재하기로 했다.

필암서원에서 7월 8일 하계 학술강연

김충호산장 '도학의 원류와 하서선생 도학시'로

2016년도 본회 하계 학술강연회가 지난 7월 8일 산양회원과 유림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열렸다.

본회 박래호 이사가 정상윤 성균관 부관장, 김남전 성균관유도회 광주본부 회장을 비롯한 귀빈들을 소개한 후 정환담 이사장의 인사말과 이개호 국회의원,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 정찬균 장성부군수의 축사가 있었다.

강사로 초청받은 김충호(金忠浩) 훈몽재산장은 <도학(道學)의 원류와 하서(河西)선생의

도학시>라는 연제로 강연하였다.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륜을 실현하는 것이 도학이라고 정의하고, 요순우탕문무주공으로부터 공자 맹자 주엽계 정명도 정이천 주자에 이르기까지 도학의 원류를 열정적으로 설명한 후 우리 도학이 정암 조광조를 거쳐 하서선생으로 이어졌음을 역설하였다. 조선 중기 도학의 전개 과정을 설명한 후 하서선생의 도학사상이 복성부(復性賦)를 비롯한 도학시에 잘 드러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산양회보에 강연내용 요약하여 실었음)

**2016년 추향제 추모화환**

광주향교 전교	강 대 욱
장성향교 전교	이 권 한
광주향교 재단이사장	최 흥 렬
광주향교 모성회장	김 형 관
서재필 기념사업회 이사장	김 중 채
성균관유도회 광주본부장	김 남 전
울산김씨 대종회장	김 달 수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 도유사	김 인 수
울산김씨 공직자 종친회	
울산김씨 밀등회장	김 상 덕
그래이스화원 대표	김 동 원

2016년 추향제 헌성금

2016년 9월 12일

姓 名	직위 및 주소	金 額	姓 名	직위 및 주소	金 額
학술회	(사) 필암서원	3,000,000	김진산	필암서원 별유사	50,000
산양회	(사)필암서원	500,000	변 원	봉암서원 별유사	50,000
김인수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 도유사	500,000	공재경	북이면 만무리	50,000
김 성	19대 국회의장 비서관	300,000	설명환	순창군 금과면	50,000
김달수	울산김씨 대종회장	300,000	김경수	서울 종친	50,000
김상열	울산김씨 대종회 부회장	300,000	김영일	장성 산림조합장	50,000
김양수	전 장성군수	200,000	반강진	장성 노인회장	50,000
김상표	맥동파 족장	100,000	김영길	서울 종친	50,000
김문수	중파 종친 (필암리)	100,000	차장곤	장성 축협조합장	50,000
고달석	장덕금속. 산양회 감사	100,000	김남전	성균관 유도회 광주본부장	50,000
김관중	장파도유사	100,000	고광춘	장성청년 유도회장	50,000
고재유	전 광주광역시장	100,000	김상백	광주종친회 총무	50,000
김상현	문정공 부도유사	100,000	김종하	광주 종친	50,000
김동식	서수헌공 종중	100,000	김상요	광주 종친	50,000
김용대	장산문중	100,000	김상준	대종회 부회장	50,000
이영만	장성교육지원청장	100,000	문영수	진원면 전 농협조합장	30,000
김재완	장성군의회 의장	100,000	주병연	북이면	30,000
정종연	장성바르게살기협의회	50,000	공재은	북이 서림사	30,000
황상길	장성고등학교 교장	50,000			

筆巖書院 山仰會員 住所錄

광주광역시

-광산구-

- **공경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70 부영 아파트 105-902
- **孔鍊雄** 曲阜, 瑞山, 광주광역시 광산구 침 단중앙로181번길 6 모아아파트 102동 702호
- **金德中** 울산, 광주광역시 광산구 강동길 143-20
- **金河培**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가산 안길 15
- **金東朝**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봉로 110 주공 아파트 101동 206호
- **金相垠** 蔚山, 淸菴,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길 56 주공 3단지 305동 104호 ① 062-951-4536, 010-6455-7595
- **梁哲承** 濟州, 松齋,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263번길 17 보라아파트 1006 ① 062-941-9805
- **柳晏重** 文化, 春溪,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2-5 동산아파트 101-108 ① 062-952-6708, 017-618-6709
- **李德在** 光山, 湖亭,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매결길 31 중흥아파트 101-1206 ① 062-953-2122, 019-228-8881
- **李泳鎬** 全州, 淸範,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상로 17 ① 062-944-0135, 011-605-8382
- **李漢秀** 全義, 義松,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남안길 5 ① 062-952-8873, 011-9613-9496
- **朴煥榮**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지정길 28
- **宋榮起**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길 5

- **梁太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94번길 31 대성베르힐 102-602
- **李德在**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매결길 31 중흥APT 101-1206
- **이동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17 호 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정승호** 경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문대로 551 동아일보취재본부 ① 062-671-7733, 011-232-0525
- **崔成休**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924-5 ① 062-951-1743, 019-601-0540

-남구-

- **고영진**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광주대학교 교수 ① 062-670-2588, 010-4708-3989
- **金基哲** 春江,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80번길 20 벽산아파트 101동 1202호
- **金杜洙** 善山, 松隱,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4동 982-5 ① 062-363-6023
- **金得煥** 梁山, 省悟,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1186번길 30 현대아파트 13동 504호 ① 062-676-4093, 011-612-4093
- **金炳郁** 울산,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삼일아파트 11동 103호
- **金炳哲**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131 라인호친 208-1110
- **金炳鴻** 蔚山,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동 502 라인아파트 101-1907호 ① 016-627-2342
- **金鑣坤**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110번길 11 ① 010-3075-7694
- **金勝圭** 蔚山,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20번길 29 현대아파트 103-306 ① 062-676-0902, 010-8230-0902
- **金永達** 淸州, 翠松,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

- 동 502 라인아파트 101동 1007호 ㉠ 062-671-3128, 011-626-5818
- **金容淑** 蔚山, 素巖,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32번안길 2 풍림아파트 101-608 ㉠ 010-3603-5724
 - **金容俊** 光山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78번길 3 대주아파트 101동 1402호 ㉠ 062-673-2052, 010-8959-2052
 - **金容河** 蔚山,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아남아파트 105-602 ㉠ 062-530-3840, 010-2612-2103
 - **金梓洙** 蔚山, 好然,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63번 안길12 하늘연가아파트 102-901호 ㉠ 062-653-6395, 010-2705-6395
 - **羅性洙** 羅州, 道川,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151번 안길14 ㉠ 062-369-234
 - **梁鎭禹** 濟州, 仁谷,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76 포스코아파트 103-208호 ㉠ 062-672-1518
 - **文相近** 南平, 痴齋,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558번길 12 ㉠ 062-227-8235, 011-613-8235
 - **朴泰根** 陰城, 西山,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7번길 19 한국아텔리움 102동 1702호 ㉠ 062-941-2911, 011-603-1252
 - **申斗千** 平山, 海松, 광주광역시 남구 광복마을길 61 광명아파트 102동 1204호 ㉠ 062-676-8752, 010-7642-7968
 - **安基奉** 順興, 松軒,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용대로180-8 금호맨션 101동 609호 ㉠ 062-672-3369, 010-6267-3107
 - **吳仁均** 羅州, 鰲山,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145 라인효친아파트 203-808호 ㉠ 062-655-9922, 010-3618-0005
 - **庾東均** 茂松, 海史,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동 삼익아파트 204동 1006호 ㉠ 062-672-4422, 017-601-4422
 - **李泳一**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로 20번길 4 광명 APT 309호
 - **李鍾日**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4동 947-5 ㉠ 062-671-7356, 010-3605-2611
 - **丁南鎬** 압해, 進山, 광주광역시 남구 백양로7번길 16-16 대주아파트 102동-1001호 ㉠ 062-671-1399, 010-6606-1399
 - **河應善** 晉州, 松岩,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5동 1018-2 ㉠ 062-364-4262, 011-279-6441
- 동구-
- **姜庚順**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91-1 ㉠ 010-3632-2191
 - **姜大旭** 晉州, 竹灘,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43번길 6 무등파크맨션 3동 301호 ㉠ 062-222-7571, 010-4603-7571
 - **姜大燦**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동
 - **김 한**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55 광주은행장
 - **金相憲** 蔚山, 德齊,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145번길 22 ㉠ 062-263-5216, 010-4112-5216
 - **金長洙** 善山, 晨溪,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86-1 ㉠ 010-2622-5577
 - **金鍾灝** 金海, 南松,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352 한국아파트 101-1509호 ㉠ 062-234-4407, 016-8345-4407
 - **南兌龍** 宜寧, 松泉,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249-1 ㉠ 062-227-6703, 062-227-4904
 - **朴景來** 珍原, 綠洋,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

- 로 중앙초등학교 옆 녹양서예원 ㉠ 062-223-2266, 062-653-0330, 011-604-0330
- 申亨澈 平山, 立軒,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76 삼익APT 1-609호 ㉠ 062-227-6268, 011-608-6286
 - 安東敎 竹山,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한국고전센터
 - 安晉吾 竹山, 次山,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47 두암타운아파트 101동 1004호 ㉠ 062-512-7475, 019-633-7475
 - 梁海根 玉井,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33-8
 - 李圭珩 全州, 松坡,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622번길 9-1 ㉠ 062-223-5480, 062-222-3130, 011-305-3130
 - 李炫浩 全州, 甘泉,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3-1 ㉠ 062-227-0300, 011-473-0300
 - 張源碩 興德, 槿庵,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71 라인아파트 101동 303호 ㉠ 062-234-0973, 011-644-0973
 - 鄭煥淡 河東, 閑道, 광주광역시 동구 백석로153번길 6-11 ㉠ 062-222-4138, 010-2611-4138
 - 趙炳春 金堤, 愚溪,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03-1 ㉠ 017-603-4090
 - 崔基洪 慶州, 金沙, 광주광역시 동구 충수동 8-7 ㉠ 062-223-0135
 - 崔相玉 全州, 裕堂,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58 ㉠ 062-222-1357, 062-527-8818
- 북구-
- 孔庚鎬 曲阜, 皓隱,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0 부영아파트 105-902 ㉠ 062-512-1779, 018-610-187
 - 孔炳哲 曲阜, 林泉,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2-2 ㉠ 062-522-5100, 011-624-0030
 - 金官中 蔚山,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21 금성맨션 703 ㉠ 011-606-9699
 - 金기현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33 전남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 062-530-2406
 - 金덕진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011-602-4784
 - 金동하 연운,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33 금호타운1-706 ㉠ 062-520-5055, 010-8609-4334
 - 金滿奎 蔚山, 講齊,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144-7 ㉠ 062-525-0247, 011-606-0247
 - 金文珍 蔚山, 南松,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27-2 ㉠ 062-528-7001, 062-521-2228
 - 金炳國 울산, 광주광역시 북구 황계로 55번길 11 삼호APT 3동 304호
 - 金炳大 蔚山, 芝村,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108 삼성아파트 6-1702 ㉠ 062-574-4928
 - 金炳琓 蔚山, 隱松,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33번길 14-7 ㉠ 062-529-7629, 019-9166-6345
 - 金炳源 울산,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94 용봉동 아이파크 101-1602
 - 金相敦 蔚山, 河月,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용산로 12 푸른마을주공 408-901 ㉠ 062-513-7058, 017-601-7058
 - 金相燾 蔚山, 鮮山, 광주광역시 북구 황계로55번길 삼호아파트 1동 307호 ㉠ 062-521-2702, 019-345-2702

- 金靈洙 蔚山, 광주광역시 북구 하백로46번길 10 금호타운 105-706 ① 061-393-2874, 019-373-8235
- 金永勳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53 벽산 APT 303-1304
- 金容圭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305번길 19
- 金鏞植 光山, 春溪,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1동 687-11 ① 016-642-9575, 062-512-6372
- 金乙洙 蔚山, 遜雲,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158 ① 062-265-3650, 011-620-0900
- 金麟奎 蔚山, 栢堂,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2동 모아아파트 102동 803호 ① 011-638-4394
- 金寅洙 蔚山, 光巖,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131번길 53 우미3차아파트 302동 303호 ① 062-524-9766, 010-2779-9766
- 金在俊 蔚山, 淸軒,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232 우성아파트 102-207 ① 062-523-5286, 016-752-5286
- 金鍾云 蔚山, 海岩,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191-4 ① 062-261-7676, 011-602-2091
- 金鍾桓 蔚山, 丹軒,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13번길 6-10 ① 062-512-3003, 010-7250-7797
- 金榛洙 蔚山,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507-5 ① 016-603-2939
- 金鎮午 蔚山, 星谷, 광주광역시 북구 황계로55번길 7 삼호아파트 1동 204호 ① 062-524-6379
- 金昌洙 蔚山, 峴松,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51 동일아파트 1805호 ① 062-521-0371, 019-616-0372
- 盧云燮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64번길 16
- 閔京鎬 驪興, 龍池,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416 대주아파트 101동 312호 ① 062-266-8961
- 朴鎭龍 順天, 素田,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33 금호타운 12-903 ① 062-261-9575, 016-642-9575
- 徐明源 達城, 淸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197-2 ① 062-232-1153, 010-2612-2914
- 宋禧鎭 洪州, 性齋,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114 ① 062-513-3961, 011-649-0134
- 安章淳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03 용봉중흥APT 101-802
- 梁海弼 南原, 雲庵, 광주광역시 북구 동대문로97번길 17 ① 062-264-0145, 016-9601-0154
- 吳炳祚 羅州, 省齋,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2-83 바르게살기운동광주광역시협의회 ① 062-571-1855, 011-636-5299
- 劉乙烈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롯데APT 109-1804
- 李文鎬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09 중흥APT 103-1211
- 李正熙 慶州, 南岡,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3-20 ① 062-527-1199, 016-249-1719
- 李洪柱 全州, 顧菴,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301동 403호 ① 062-251-1315
- 鄭鳳采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11번길 19-5 ① 062-526-0008, 011-625-0008
- 鄭炫中 광주광역시 북구 신촌로 23번길 24-10

- 車政演 延安, 大仁,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55 현대아파트 105-1602 ㉠ 062-571-3338, 017-234-3338
- 崔炳植 隋城, 興山,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53 벽산아파트 307-2004호 ㉠ 062-525-3800, 010-9899-3802

-서구-

- 姜仲錫 晉州, 梅亭,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96 광명아파트 105-505 ㉠ 062-371-0108, 017-609-0108
- 高達錫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51 금호어울림4차 406-1006 ㉠ 010-6290-1621
- 郭龍鮮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 40 동부아파트 107-602
- 奇世樂 幸州, 滿齋,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57번길 3 금호타운 104-102 ㉠ 062-375-4348, 011-609-6965
- 金南田 彦阳, 爛谷, 광주광역시 서구 백석길 15 희망가아파트 103-1103 ㉠ 062-524-6622, 010-3607-1099
- 金炳郁 蔚山, 광주광역시 서구 회운로 175번길 90 대주아파트 101동 1408호 ㉠ 062-651-3233
- 金炳槿 蔚山, 仁松,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1동 현대아파트 103-705 ㉠ 062-373-2599, 011-600-2599
- 金秉學 商山, 蓮谷,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0 99번길 16 중흥파크아파트 1-108호 ㉠ 062-365-2199, 016-686-2199
- 金相德 蔚山,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240번길 8 현대아파트 102-602 ㉠ 062-381-7799, 019-679-7799
- 金相集 울산, 광주광역시 서구 마루북개로 164 성우APT 101-1701 ㉠ 062-431-5518, 010-3607-0518
- 金重采 光山, 大原,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30 삼익APT 2-803 ㉠ 062-363-3333, 010-2608-9999
- 金采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일신APT 106-403
- 羅榮均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마재로 57 주은APT 101-906
- 朴炳浩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모아APT 101-1206
- 朴鍾達 광주광역시 서구 백석길 22-17 상무자이아파트 10-60 ㉠ 062-262-6779, 011-361-6779
- 朴煥圭 務安, 南靖,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151번길 17 남양아파트 105-1002 ㉠ 062-655-1626, 010-3616-5634
- 安龍鎬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116번길 13 ㉠ 011-403-3607
- 柳鍾相 高興, 玄供,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28번길 60 신동아아파트 103-85 ㉠ 062-365-3287, 011-9865-3930
- 尹漳鉉 海南, 一沙,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149번길 27 모아아파트 104-306 ㉠ 062-373-5356, 016-658-5357
- 尹淙根 驪州, 義齊,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4 금호맨션 3-805 ㉠ 062-366-4311, 017-627-7008
- 李啓善 咸平, 福山,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83번길 4-13 ㉠ 062-228-2106, 062-374-4190
- 李明秀 光山,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8-1 중흥파크 109동 107호

- **李載英** 咸平, 竹山,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197번길 20-7
- **李汀圭** 星州, 靑坡,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100번길 14-1 호반리젠시빌 507-405호 ① 011-628-1372
- **鄭尙允** 光州, 源齋,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019번길 14 대덕빌라 301호 ① 062-372-0889, 011-624-0277
- **丁彩鎬** 昌原, 滄江,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56번길 19 三能아파트 101-301 ① 062-376-2248, 010-9443-1436
- **曹相烈** 昌寧, 厚堂,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120 우미아트빌 205동 901호 ① 062-372-7070, 010-2606-5600

전라남도

-장성군-

- **康隆一**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하서대로 736
- **高光玉** 長興, 牛峰, 전남 장성군 삼서면 우치리 ① 061-394-2079
- **고광춘** 전남 장성군 장성읍 축령로 56 ① 010-9999-5151
- **高在根** 長興,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월산1길 46-2 ① 061-393-2642, 010-2658-2642
- **高在鎰** 長興, 전남 장성군 황룡면 내향길 66-10 ① 061-394-5800, 011-9995-0401
- **奇宇天** 幸州, 松隱堂, 전남 장성군 서삼면 용흥길 271-3 ① 061-394-2808, 011-442-2808
- **金圭司** 전남 장성군 황룡면 뱃나드리로 188-1 ① 010-2986-2690
- **金文洙** 울산, 전남 장성군 황룡면 선촌길
- **金相權** 울산, 전남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영천휴먼시아 203-905
- **金相基** 蔚山,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남계 ① 061-392-5151, 017-650-5721
- **金相德** 蔚山, 전남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중평 ① 061-392-7511
- **金相述** 전남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16 ① 061-393-8103, 016-4850-0625
- **金相沃** 蔚山, 전남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10 ① 061-394-6768, 016-654-6744
- **金相元** 蔚山, 台巖, 전남 장성군 장성읍 충무4길 17 ① 061-392-2804, 019-618-2804
- **金相杓** 蔚山, 加平, 전남 장성군 진원면 학전리 평촌 ① 061-392-5115, 011-9625-9666
- **金相욱** 울산, 전남 장성군 진원면 학전길
- **金榮日** 전남 장성군 동화면 원남평길 60-17
- **金長煥** 영광, 전남 장성군 황룡면 외장산길 3-37 ① 011-614-0549
- **金載堦** 전남 장성군 북이면 달성길 32 ① 010-5007-8315
- **金才洙** 전남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831
- **金載孝**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홍길동로 445-29
- **金正柱** 전남 장성군 삼계면 능성로
- **金辰煥** 전남 장성군 동화면 기산길
- **金 縑** 蔚山, 전남 장성군 서삼면 해평길 20
- **金南圭** 蔚山, 愚耕, 전남 장성군 북이면 사가묘동길 32
- **金道今** 전남 장성군 북하면 월성연동길 9-8
- **金兩洙** 蔚山,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부강2차아파트 506호 ① 061-394-6348, 010-8899-6348

- 金炳坤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83 ㉠ 061-394-1272, 018-410-3978
- 金炳琯 전남 장성군 북하면 중평2길 15-17
- 金炳國 蔚山, 阿樵, 전남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225 ㉠ 010-6803-0995, 070-7796-9900
- 金炳倫 蔚山, 京巖, 전남 장성군 북하면 성암길 29-9 ㉠ 061-392-6950, 011-643-8964
- 金炳俊 蔚山,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로 241-25 ㉠ 061-393-9840, 011-211-9323
- 金福源 商山, 湖隱, 전남 장성군 삼서면 태산로 38-12 ㉠ 061-394-1969, 011-219-1969
- 金碩基 商山, 桂村,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로 262-17 ㉠ 061-393-3937, 010-4513-3937
- 金盛洙 蔚山, 牧井, 전남 장성군 장성읍 신천길 54 ㉠ 061-393-6771, 061-393-2316
- 金泳豐 蔚山, 白松, 전남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숲실길 ㉠ 062-651-7447, 011-645-7445
- 金容益 蔚山, 東隱, 전남 장성군 북하면 중평1길 30-3 ㉠ 061-392-7621, 019-9160-7621
- 金應烈 晉州, 漁雲, 전남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80 ㉠ 061-394-1937
- 金在洙 晉州, 貞軒, 전남 장성군 삼서면 삼봉로 249 ㉠ 061-394-2242
- 金在植 光山, 錦齋, 전남 장성군 서삼면 해평길 20 ㉠ 061-393-4770
- 金昌洙 光山, 和堂, 전남 장성군 동화면 동호2리, ㉠ 061-393-5151
- 金採林 金海, 淸련당,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룡길 29-7 ㉠ 061-392-6365, 016-255-6978
- 金漢植 光山, 慎菴, 전남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동계 ㉠ 061-393-5149
- 羅天柱 錦城, 鳳耕, 전남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 061-394-2315, 016-684-2315
- 文영수 전남 장성군 진원면 덕주2길 18 ㉠ 010-3603-2641
- 朴來鎬 泰仁, 蘆江, 전남 장성군 장성읍 내기길 70 ㉠ 062-232-6353, 061-393-8880, 010-6712-8881
- 朴英洙 密陽, 전남 장성군 황룡면 구석길 12-3 ㉠ 061-393-4207, 019-9742-4207
- 朴泰鈞 珍原,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길 29 ㉠ 061-392-5451, 016-601-5451
- 邊東銘 黃州, 虎巖,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박산길 18-5 ㉠ 061-393-1157
- 邊東森 黃州, 전남 장성군 북일면 북창길 23 ㉠ 061-393-1362
- 邊東燦 黃州,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19 ㉠ 011-666-8113
- 邊炳淵 黃州, 强庵, 전남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 061-393-1141, 011-615-5595
- 邊日燮 황주, 전남 장성군 황룡면 뱃나드리로 164
- 奉炳國 전남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 奉祥九 河陰, 雲史, 전남 장성군 장성읍 삼월동 1329 ㉠ 061-393-2188, 019-693-2188
- 徐京澤 利川, 中元,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홍길동로 ㉠ 061-393-3235, 011-347-0078
- 宣在奕 宝城, 笑巖, 전남 장성군 남면 녹진길 41 ㉠ 061-394-3934, 019-9146-3934
- 沈貞燮 전남 장성군 남면 황토단감길 371
- 梁熙澤 南原, 平齋, 전남 장성군 황룡면 선촌길 20 ㉠ 061-393-5874, 010-9236-5838

- 吳昌均 전남 장성군 북이면 만골로 726-17
 - 柳壽煥 전남 장성군 북이면 모현로 99-6
 - 劉載善 江陵, 林阜, 전남 장성군 진원면 상림길 42 ㉠ 061-394-4820, 019-640-4820
 - 劉載述 江陵, 蘆松, 전남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061-392-8987
 - 李沂錫 光山, 栢軒,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3동 매화파크빌라 201호 ㉠ 061-393-2008, 011-627-1856
 - 李相鏞 慶州, 碧松, 전남 장성군 동화면 본동로 803-8 ㉠ 061-392-0436, 017-602-0436
 - 李載洙 咸平, 鶴圓, 전남 장성군 삼서면 이문길 31-2 ㉠ 061-394-2306
 - 李正仁 전남 장성군 황룡면 다산길 66
 - 李忠源 光山, 栢楊,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3길 6-1 ㉠ 061-392-6500, 010-3627-1057
 - 林基玉 兆陽, 南隱, 전남 장성군 남면 월곡리 741 ㉠ 061-392-3602
 - 林載珩 전남 장성군 진원면 수촌길 25-4
 - 鄭在龍 전남 장성군 삼서면 보생길 16-11
 - 鄭鶴基 전남 장성군 삼서면 석마리
 - 崔南周 全州, 전남 장성군 황룡면 내장산길 ㉠ 061-393-5598, 018-612-0574
 - 黃龍植 長水, 喜濟, 전남 장성군 황룡면 교동2길 12-2 ㉠ 061-393-6675, 011-633-6675
- 담양군-
- 高光宣 장흥, 友松, 전남 담양군 수북면 포백길 75-3 ㉠ 061-382-7808
 - 高祐錫 長興, 松原, 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36 ㉠ 061-382-8404, 011-9608-8404
 - 金炳椀 蔚山, 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천길 91-23 ㉠ 061-382-8619
 - 金相允 전남 담양군 수북면 원대방길 38-4 ㉠ 010-6603-4488
 - 金容圭 광산, 전남 담양군 봉산면 연동길 49-2 ㉠ 010-9850-1061
 - 金載洪 전남 담양군 고서면 후산길 85
 - 金鍾甲 順天, 澗齋, 전남 담양군 고서면 방죽안길 35
 - 金鍾南 전남 담양군 대전면 덕진옥산길 19-6
 - 梁仲鎬 濟州, 전남 담양군 수북면 쪽재골길 73 ㉠ 061-382-7588
 - 梁亨根 濟州, 春坡, 전남 담양군 수북면 넘느들길 65-3 ㉠ 061-382-7138
 - 柳晏重 文化, 春溪, 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곡1리 ㉠ 062-952-6708, 017-618-6709
 - 林魯德 전남 담양군 대전면 추성1로 347 ㉠ 011-617-1808
 - 朴玟鎬 전남 담양군 수북면 강동길
 - 朴文洙 密陽, 月潭, 전남 담양군 주산리 주평 ㉠ 061-382-3227, 011-609-3228
 - 朴奉遠 전남 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245-13
 - 朴成鎬 전남 담양군 대전면
 - 宋嘻鎭 전남 담양군 남면 생오지길 200
 - 유창중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동운 윤교길23-85
 - 任根亨 전남 담양군 고서면 월양길 205
 - 정은택 전남 담양군 고서면 방죽안길
 - 丁鍾澈 전남 담양군 대전면 내동길 56
 - 曹相鎬 昌寧, 心松, 전남 담양군 고서면 잣정길 93 ㉠ 061-383-0534, 016-778-0534
 - 曹仁鎭 昌寧, 蘇潭, 전남 담양군 고서면 잣정길 51 ㉠ 011-610-8020

- 陳和燮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기목길39-42

-보성군-

- 金在京 전남 보성군 겸백면 하가길 15-8
- 金在鎔 경주, 志軒 전남 보성군 겸백면 평호리하가길15-8 ㉠ 061-853-6105, 010-4514-6105
- 廉東玉 坡州, 梅山, 전남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428 ㉠ 061-852-5345, 010-9939-5345
- 廉喆浩 坡州, 勤軒, 전남 보성군 문덕면 동소산길 ㉠ 061-853-5679
- 朴文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원지동길 152
- 朴性學 珍原, 전남 보성군 겸백면 사곡리 422 ㉠ 061-853-2267, 011-749-0267
- 徐永根 전남 보성군 노동면 광화길 30-3 ㉠ 061-852-0065, 010-5048-0657
- 宣炳國 전남 보성군 문덕면 동산리
- 安圭玉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395
- 安鍾德 전남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 산정
- 安泰淳 竹山, 述軒, 전남 보성군 북내면 북내1리 242 ㉠ 061-853-9931
- 梁東燮 전남 보성군 득량면 기동길 2
- 任亨模 長興, 전남 보성군 겸백면 용산리 ㉠ 061-853-6256, 011-603-4807
- 蔡吉三 平康, 南泉, 전남 보성군 북내면 개기로1469

-함평-

- 金圭琛 商山, 縝亨, 전남 함평군 나산면 시루되길 3-6 ㉠ 061-322-8373, 016-603-8373
- 金柱煥 金海, 玄堂, 전남 함평군 해보면 주현길 7 ㉠ 061-322-0551, 011-627-0552
- 盧廣燮 光州, 深山, 전남 함평군 나산면 나산길 88-8 ㉠ 061-322-8345, 011-640-8345

- 李汶行 咸平, 松谷, 전남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928 ㉠ 061-322-8000, 010-5613-8000
- 李載承 咸平, 松山, 전남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867 하산 ㉠ 061-322-8100, 011-602-6789
- 李辰行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길 23-2 ㉠ 061-322-3426
- 張璉燮 전남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546
- 鄭鍾仁 羅州, 春谷, 전남 함평군 나산면 시루외길 ㉠ 061-322-8282, 061-644-8288

-화순-

- 金星 전남 화순군 동북면 유치길 168 ㉠ 010-3608-5000
- 金吉雄 전남 화순군 동면 장동리 323 ㉠ 010-609-1197, 061-373-7320
- 李泳福 公州, 雲亭, 전남 화순군 춘양면 춘양로 62-26 ㉠ 061-372-7033, 016-683-5785
- 李雲休 전남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 朴奇鎬 密陽, 又玄, 전남 화순군 도암면 원천리 ㉠ 061-373-0518, 010-6644-0518
- 徐在豊 전남 화순군 이양면 괴화동길 63
- 李雲休 전남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 曹基榮 전남 화순군 화순읍 노대길 20

-전라남도 타군-

- 吳永在 전남 강진군 군동면 화방3길 25
- 尹泳烽 南海, 海亭, 전남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 061-432-0079, 011-9609-2088
- 宋鍾默, 南陽, 晚松, 전남 고흥군 동강면 동강당곡길 113-8 ㉠ 061-833-2123, 011-9430-0245
- 金炳國 전남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139
- 金鎭圭 전남 곡성군 옥과면 금의길 537
- 吳翼星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2리

- 鄭得采 河東, 梧鳳, 전남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127-2 ㉠ 061-362-5175, 011-9623-5175
- 丁宗杓 羅州, 慕蓮, 전남 곡성군 석곡면 연동길 71 ㉠ 061-363-3715
- 허종남 전남 곡성군 겸면 가정리 영귀서원
- 韓永弘 전남 광양시 광양읍 유당로 75
- 高在萬 전남 구례군
- 李材珉 屋主, 忍齋, 전남 나주시 세지면 용산길 48-9 ㉠ 061-331-5111, 011-9432-5011
- 林元澤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532-15 ㉠ 061-335-0770, 010-3629-3507
- 朴弘淳 順天, 澗齋, 전남 나주시 세지면 풍동길 24 ㉠ 061-337-5572
- 趙鏞敏 咸安, 雲菴, 전남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마골 ㉠ 062-222-6474, 061-337-8850
- 崔泰均 전남 나주시 송월동 137 ㉠ 061-334-2098, 016-680-1843
- 金善浩 전남 무안군 무안읍 상고절길 29
- 金仁燮 전남 무안군 해제면 고읍길
- 裴錫五 전남 무안군 청계면 남성길 35
- 朴淙柱 珍原, 晩堂, 전남 순천시 팔마로 35 ㉠ 061-745-5717, 011-644-2986
- 朴炯梓 珍原, 旻山, 전남 순천시 팔마로 4-1 ㉠ 061-744-8630, 011-9614-8633
- 金正泰 金海, 藥軒,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6 ㉠ 061-473-2033
- 愼喜範 居昌, 月山, 전남 영암군 덕진면 신암길 34-1 ㉠ 061-473-3697, 010-2002-3697
- 李文甲 전남 장흥군 관산면 옥당1리

전주시

- 金鳳洙 蔚山,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3-46 ㉠ 063-274-3821

- 金상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애봉로29 대영주택 나동 205호
- 金彭洙 蔚山, 莘浩,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495 대림편한세상아파트 104-602 ㉠ 063-230-0160, 011-681-0160
- 金煥在 康津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266 거성고속맨션2차 820호 ㉠ 063-272-9618
- 申文秀 高靈, 晩松, 月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99-1 월정서예학원 ㉠ 063-282-4427, 016-627-4427
- 安在格 順興, 行山,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견훤왕궁2길 24-12 ㉠ 063-285-3389, 017-606-3389
- 安泰錫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23
- 楊萬鼎 南原, 玄谷,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31 서호아파트 101동 205호 ㉠ 063-288-3646, 063-274-7995
- 吳鍾逸 同福, 臥龍,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176 현대아파트 203동 303호 ㉠ 063-282-7799, 사무실 063-282-7797
- 李康善 全州, 賢庵,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20 현대아파트 106동 809호 ㉠ 063-222-5921
- 李世煥 固城, 葛川,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견훤왕궁로88 393-1 갈천서원 ㉠ 063-285-7755, 011-670-7855
- 林東翼 羅州, 雲湖,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705-6 광진궁전아파트 7-1201 ㉠ 063-224-6697, 019-489-6697
- 鄭雲炎 迎日, 斗下,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60-8 현대아파트 1001호 ㉠ 063-272-3900, 018-285-3900

- 韓相玉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1583-5 대영주택 나동 205호

전라북도

- 高永莢 長興, 后石, 전북 부안군 주산면 소산제대길 46 ① 063-582-6386, 011-9951-1360
- 金炳崙 蔚山,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10길 11-15 ① 063-232-0626, 011-678-2051
- 金炳閔 蔚山, 愚學, 전북 순창군 답동리 151 식생원 ① 063-223-9729
- 金仁煥 慶州, 전북 정읍시 연지동 350 ① 019-686-3977
- 金在重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장안길 41
- 金載元 蔚山,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삼태 ① 063-267-6645
- 金忠浩 光山, 古堂, 전북 순창군 쌍치면 둔전2길 83 훈몽재
- 吳龍根 羅州, 錦峰, 전북 남원시 아영면 구상리 296 ① 063-626-0216
- 李夏永 全義, 紹強, 전북 완주군 상관면 내어두길 지큐빌 107동 1101호 ① 063-282-7608, 011-9640-7608
- 劉一鍾 江陵, 河南, 전북 정읍시 상동 283-11 ① 063-535-3497, 011-9923-3497
- 韓鳳基 전북 고창군 무장면 덕산리 21
- 韓相玉 전북 고창군 대산면 칠거리로 411-2

서울 · 경기 · 대전 · 충청

-서울특별시-

- 金東炫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46길 21-3
- 金炳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동

아일보

- 金相燁 蔚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23길 64 현대맨션 1동 201호, ① 02-3481-8436, 02-2243-5975
- 金상하 울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삼양사 삼양그룹회장
- 金成勳 光山, 月浦,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26길 20 성우빌라 503호 ① 02-549-7878
- 金在億 蔚山, 三羊,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삼양사 ① 02-400-4457, 010-5302-7012
- 邊瑠燮 黃州, 元谷,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129길 20 ① 02-3442-0220, 016-342-2288
- 李瓚熙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3길 29-10
- 許鎬九 金海, 重山,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동 대우아파트 120동 1404호 ① 02-912-4733, 011-9894-4733
- 洪赫基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66번길 22 현대아파트 102-705

-경기도-

- 金吉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묵현리 경성아파트 105-103
- 金相老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864 e편한세상 센트레빌 109-501
- 민방식 경기도 의왕시 호성로 48-7 진달래아파트 103동 209호 ① 031-451-2595
- 朴秉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47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 432호
- 田光弘 潭陽,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외사리

① 031-633-2723, 011-9654-2723

- 鄭亮元 草溪, 至愚堂,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현대성우아파트 813-1004 ① 031-261-3193, 016-594-3103

-대전광역시·충청도-

- 金燿中 蔚山,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215 가람아파트 9동 1302호 ① 042-482-0556, 011-609-7784
- 金相元 蔚山, 충북 충주시 양성면 목미리 삼당1길 278-13
- 柳淙鉉 대전광역시 유천로47번길 70
- 宋東憲 恩津,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 205번길 67 ① 042-284-0161
- 宋俊彬 恩津, 愚公,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1 현대아파트 103-902호 ① 042-221-3377, 011-9772-0668

부산·경남·경북

- 金煥根 義城, 一剛, 경남 김해시 장유면 장유로288길 13 ① 051-971-3309, 017-571-1960
- 宋台復 淸州, 晚悟, 경남 김해시 삼안로 224 동원아파트 105동 406호 ① 055-334-0045, 011-9720-0378
- 宋賢復 淸州, 湖亭, 경남 김해시 어방동 동원아파트 502동 903호 ① 055-328-9315, 017-575-4457
- 張玄武 仁同, 春坡, 경남 하동군 악양면 대축길 47 ① 055-883-3673, 011-9522-3673
- 鄭昌碩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162번길 86
- 金正國 慶州, 白啞, 경북 경주시 포석로 1068번길 5-3 ① 045-772-3898, 010-2878-3898
- 孫寧達 慶州, 경북 경주시 침성로73번길 5 ① 054-749-6708, 010-5521-6708
- 姜麟鉉 晉州, 于堂, 경남 하동군 고전면 지소2길 10-34 ① 055-82-5259
- 高麟祚 濟州, 仁谷,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191번길 27 ① 051-783-5924, 011-835-5924
- 金광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34 충효회관
- 金鎭雄 蔚山, 晚巖,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대로 473 현대아파트 110동 2003호 ① 051-265-4237, 010-3565-4237
- 金兌桓 瑞興, 守,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235-5 우신뉴타운 101동 403호, 051-518-6242, 019-527-6242
- 金熙明 光山, 誠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남로12번길 37 ① 017-560-4586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1년 8월 22일 필암서원에서 고흡곤 씨 등 유림 230명이 모여 구 산양계를 ‘산양회’로 발족
- 2001년 8월 22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생애와 사상”주제 아래 安晉靑 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년 10월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우암선생이 본 하서선생” 주제 아래 趙鍾業 충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년 12월 22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주제 아래 金基鉉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년 3월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 후 “인종승화와 하서의 절의”주제 아래 金鎮雄씨(서울대 공대졸, 부산 거주, 문정공파 부도유사)의 강회
- 2002년 8월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 집강)가 번역 봉독
- 2002년 9월 26일 秋享 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천명사상”의 주제 아래 尹絲淳 고려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2년 12월 1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제1호) 1000부를 발행 配布
- 2002년 12월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선비정신” 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逸 교수의 강회
- 2003년 3월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煥圭 전남대 명예교수(담양 가사 문학관장)의 강회
- 2003년 5월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晉靑 산양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을 하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음
- 2003년 6월 2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제2호) 1,500부를 발행 配布
- 2003년 7월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의 강회를 여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음
- 2003년 9월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무 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하였음
- 2003년 12월 10일 山仰會報 제3호 1500부를 발행 배포
- 2003년 12월 17일 산양회 정기총회, 安晉靑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사임하고 새회장에 朴鍾達, 새총무에 孔鍊雄 선임.“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학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년 3월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대 박병호 교수가 河西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하였음
- 2004년 9월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년 12월 10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경제학과 이현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4호 1500부 발행
- 2005년 3월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유림이 나아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총장 洪一植 박사가 강연함
- 2005년 6월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청절당에서 강연함
- 2005년 12월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선생의 中和 思想’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년 3월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 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년 7월 5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중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년 10월 1일 춘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리러보는 河西 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헌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함
- 2006년 12월 13일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강연함
- 2007년 4월 3일 추향제 올리고 ‘하서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세지’란 주제로 변은섭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했음

- 목 차 -

하서 시(河西 詩) 감상 I 송별	01
하서 김인후의 자식 잃은 슬픔 I 김세곤(호남역사연구원장)	02
필암서원(筆巖書院)과 울산김씨(蔚山金氏) I 김봉곤(원광대 연구교수)	04
공동체는 탁월한 개인보다 지혜롭다 I 강위원(여민동락공동체 대표살림꾼)	19
도학의 원류와 하서선생의 도학시 I 김충호(훈몽재 산장)	28
필암서원 · 산양회 소식	31
회원 주소록	36

- 알 림 -

1. 변경된 새 주소와 전화번호를 써 주십시오.

- 앞으로 새 주소록을 만들려고 하니 새로이 시행될 주소와 변경된 전화번호를 방명록에 꼭 적어주십시오.

2. 회비 입금 계좌 및 입회 절차 안내

- 회원님들께서는 장성 농협(301-0093-8931-91) (사)필암서원 산양회 계좌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강연회 또는 춘추향제에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 계좌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0-2705-6395 김재수)로 다음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① 성명(한문) ② 본관 ③ 아호(한문) ④ 생년월일 ⑤ 주소 ⑥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⑦ 학력 및 경력, 현직

3. 청 · 장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7년 12월 2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강연. 산양회보 10호 발간. 吳仁均 신임회장 선출
- 2008년 3월 1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과 가사문학」이란 주제로 문경규 전 담양군수 강론
- 2008년 7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박준규 박사가 「河西 문학의 道學的 이해」 강연. 산양회보 11호 발행
- 2008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柳承國 원장이 「東아시아 사상 基調로서의 道와 河西思想」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8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김재수 교수가 「河西는 佯狂爲奴論을 왜 썼는가」 강연함. 산양회보 12호 발간
- 2009년 3월 13일 필암서원에서 春香祭 올리고 安炳周 박사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을 주제로 강연.
- 2009년 7월 1일 崔山斗 先生의 도학정신(최대우 교수) 강연, 山仰會報 13호 발간
- 2009년 9월 29일 추향제. 이동준 성균관대 전 유도대학장이 「하서 선생의 학문 세계」 강연
- 2009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이준영 감사 「예기유행편」 강독, 산양회보 14집 발간
- 2010년 3월 2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 도학과 절의에 대한 강연.(金東炫 울곡사상연구원 이사장)
- 2010년 7월 7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선비정신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 하서 선생의 上李太守書에 대하여 (金正洙) 강연, 산양회보 15집 간행
- 2010년 12월 16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선비의 시각으로 파악한 河西 선생 : 오종일(전주대 명예 교수) 강연
- 2011년 3월 23일 춘향제 올리고, 김병일 원장 「선현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강연
- 2011년 7월 6일 집성관에서 '한국 유학의 현대화를 위한 논점 세 가지'(전남대 김기현 교수 강연) 회보 17호 발간
- 2011년 9월 9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심우영(전 총무처 장관, 전 한국국학진흥원장 장관) 강연
- 2011년 12월 20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하서 김인후의 誠敬 사상 : 이애희(강원대 교수) 강연
- 2012년 3월 7일 추향제, 초헌관 최상옥 회장
- 2012년 7월 4일 집성관에서 '하서 선생의 시문학에 대한 후인들의 평가' 박명희 박사(전남대 호남학 연구원)
- 2012년 10월 3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박병호 원장 「하서 선생에 대한 사관(史官)의 평가」 강연
- 2012년 12월 2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정환담 학장 : 「하서 사상의 현대사적 재조명」 강연
- 2013년 3월 22일 춘향제 올리고 초헌관 이낙연 의원 「河西의 出處는 오늘날 공직자의 귀감」 강연
- 2013년 7월 1일 집성관에서 '동춘당과 우암의 하서 존숭' 김문준 교수 강연(건양대)
- 2013년 9월 30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이정식(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원장)이 '한중 호남 문화속의 악록서원과 필암서원 교류 의미와 전망'이란 주제로 강론
- 2013년 12월 13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고영진 교수, '하서 김인후, 그가 만났던 사람들' 강연함
- 2014년 3월 17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이성무 한국학술원 부원장,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사상' 강연함
- 2014년 6월 25일 집성관에서 '청백리 사암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생애와 사상'이란 주제로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 강연
- 2014년 9월 13일 필암서원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서정기 성균관장 '유교와 현대 민주주의' 강연
- 2014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 '하서의 철학과 복성부(復性賦)' 강연
- 2015년 4월 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뿌리회 이용규 전 회장 '강화학과 정신과 독립운동' 강연
- 2015년 10월 2일 추향제 올리고 박광순 학술원 회원 '유교의 종교성에 관한 일고찰' 강연
- 2015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오종일 전주대 교수 '하서 선생시의 천명사상과 그 지향성' 강연
- 2016년 3월 26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 '하서선생 〈천명도 제사〉의 우리 말 해석에 대한 소견' 강연
- 2016년 7월 8일 집성관에서 김충호 훈몽재 산장 '도학의 원류와 하서선생 도학시'로 강연
- 2016년 9월 12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고재유(전 광주광역시장) 인사말